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위험에 직면해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 말라.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3월 7일)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은 4월 19일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출범사를 하고 있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핵심불사 '천년을 세우다' 본격화

조계종, 4월 19일 추진위원회 출범식 봉행

마애불 입불, 명상 센터 건립 추진
진우 스님 "新 천년을 세우는 불사"
종정예하 "머잖아 존안 뵙게 될 것"
교구본사, 직영사찰 등 기금 약정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주요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명상센터 건립 등을 시행하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4월 19일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미래천년 동력 세울 범불교적 조직

'천년을 세우다'는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을 총괄하는 슬로건으로 '과거 천년'을 세워서 '미래 천년'을 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과거 천년'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미래 천년'은 진우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 동력을 결집하는 불사를 의미한다.

추진위원회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증명으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위원장을 맡고, 교구본사 주지 · 중앙종회의원 · 주요신도단체장 · 명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불교적 조직으로 구성됐다.

주요 불사를 주도할 부문별 추진단장으로는 열암곡 부처님 바로세우기 추진단장 종천 스님(불국사 주지)과 탄원 스님(총무원 문화부장), 명상센터 추진단장 허운 스님(관음사 주지), 교구특성화 단장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과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미래세대 인재양성 단장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 등이 참여한다.

'천년을 세우다', 불교중흥 이끌 불사

이날 출범식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마애불이 바로 세워져 존안을 뵙기를 축원했다. 성파 대종사는 "돌이켜 생각해보니 석불을 세움도 시절인연이요 마애불이 스스로를 감춤도 시절인연이라. 숨었던 불상이 다시 나타나신 것 역시 시절인연이 아니겠는가"라며 "머잖아 장엄한 존안(尊顔)을 뵙게 될 터이니 천상천하가 환희할 일"이라고 축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출범사를 통해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비원(悲願)을 안고 넘어진 채 엎드린 부처님을 바로 모심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이 불사는 중생교화의 만대지침이 될 것이며, 교단이 수행과 전법의 영겁기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은 미래 천년을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 주춧돌 위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미래 천년이라는 건물을 올려야 한다. 바로 불교의 새로운 중흥"이라며 "새로운 미래의 '천년을 세우다'는 우리 불교의 중흥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문화대국이 되는 국운융창의 새로운 천년을 세우는 엄중한 뜻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부대중, 불사 성공 마음 모아

출범식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각 기관 · 협회차원의 사업 동참을 약속했다.

열암곡 마애불 입불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재청 역시 사업 협력을 다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제는 열암곡 마애불이 안전하게 바로 서 제대로 모실 수 있도록 흔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출범식에서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성공을 기원하며 전국 교구본사, 직영사찰, 지역 사찰들이 불사 기금을 약정했다. 기금 약정에는 74개 사찰이 동참했으며, 총 42억 5900만 원이 모연됐다.

2025년 열암곡 마애불 입불 목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됨에 따라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주요 종책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28일 오후 2시에는 경주 남산 열암곡 주차장에서는 진우 스님과 경상도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도입재법회'가 봉행된다.

마애불 입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에 발표된다. 이후 2024년 입불 실대형 모의시험을 거쳐 2025년 입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은 올해 하반기 중 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주요 명상지도자와 정치 · 문화 · 사회계 유명인사를 초청해 프로그램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프로그램을 확정해 보급과 지도자 양성에 나선다는 게 조계종의 복안이다.

종단 명상센터 건립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전남 담양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별 명상센터 수탁운영도 추진될 계획이다.

전국 사찰 문화재관람료 5월 4일부터 폐지 예정

기획실장 성화 스님 기자간담회
"개정 法 시행 앞서 막바지 협상"

전국 70여 사찰에서 징수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가 5월 4일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1년에 이뤄진 쾌거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4월 17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정부 측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등 종단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성화 스님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월 4일부터 사찰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면서 "최종적인 실무 협상을 기획재정부 등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49조 4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19억 원을 사업비 예산으로 반영했다. 하지만 조계종과 기획재정부는 예산 지원 범위를 두고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성화 스님은 "무료 개방이 이뤄지면 사찰 방문객들이 20~30% 이상 급증이 예상된다. 수행환경 훼손과 문화재 보존 관리, 환경 유지 비용 등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설명하고 있다.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문화재관람료 감면제도 시행에는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현대불교신문 업무협약

4월 18일 공동기획 MOU 체결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 등 모색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현대불교신문(대표 혜도)이 4월 18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중앙본부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2023년 한해 동안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연계에 상호 협력한다.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양 기관의 업무교류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익활동에서의 홍보활동을 강조한 스님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대불교신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30년사를 정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올 한해 활동성과를 홍보하고 후원활동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불교신문 대표 혜도 스님은 "30년간 이어진 생명나눔의 아름다운 활동은 불자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준다"면서 "아름다운 활동을 적극 보도해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후원에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기부문화가 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불교신문도 생명나눔실천본부와 같이 내년 10월 창간 30주년을 맞는 만큼 생명나눔실천본부와 다채로운 협력을 통해 발전 상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은 4월부터 올해 말까지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각종활동과 주요 행사를 심도 있게 보도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사부대중일동

주소 5790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전화 061-754-5247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에 상진 스님 당선

4월 18일 선거…153명 투표 중 95표 받아 선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오는 6월 27일부터 임기 시작해
6대 공약 강조해…"공심 갖겠다"
문화사업단 설립, 문화포교 계획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상진 스님(사진 왼쪽)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에게 당선증을 전달받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은 4월 1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28대 총무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선거에는 선거인단 164명 중 15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3시 이후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개표 결과 기호 1번 상진 스님이 과반인 95표(62.1%)를 받아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을 확정지었다. 기호 2번 성오 스님은 58표(37.9%)를 획득했고, 기권은 2표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은 상진 스님의 당선을 선포한 뒤 당선증을 전달했다.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임기는 6월 27일부터 시작한다.

당선 직후 상진 스님은 차분하게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특히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6가지 공약 추진을 약속했다. 상진 스님은 선거 당시 △문화사업단 설치 운영 △지방분권의 확립 △교육사업 확대 △승려복지 현실화 △종단 운영의 자립화 △징계절차 3심화 부활 등 6대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상진 스님은 "선조사 스님의 발자취를 온 정신에 새기고 앞장서 후학들이 따를 올곧은 첫 걸음을 내디디려 한다"며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발자욱이 앞으로 뒤따를 후학이 살아갈 종단을 만든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신중하고 뚜렷한 이정표를 남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납의 6가지 공약은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이 종단 구석구석 퍼져 뿌리를 내릴 것"이라며 "마침내 거대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돼 종도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태고종에서 웃으며 두 손을 마주잡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상진 스님은 "공심(公心)으로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진 스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공명정대하게 총무원을 이끌어 가겠다"며 "사심없이 오직 공심으로 종단을 운영하겠다. 태고 보우 국사를 종조로 모시기에 태고종은 한국불교 적자 종단이다. 이 종단이 빛이 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시행할 종책으로는 각 교구 종무원장들에게 종단 운영에 대한 의견 경청을 꼽았다. 이에 대해 상진 스님은 "태고종 각 교구 종무원장들과 앞으로 종단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조율하려 한다"고 밝혔다.

제1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화사업단에 대해 상진 스님은 "태고종이 보유한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하고 국가지원금을 확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 한다"며 "전통불교문화 발굴과 전파를 종단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한국불교문화의 선두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의 의전 서열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종단협 의전 서열은 사실 한국불교 종단 서열도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는 조계종-천태종-진각종-관음종-태고종 순으로 원래는 태고종이 의전 서열 2위였으나, 종단 내 갈등과 분규로 의전 서열이 추락하게 됐다.

상진 스님은 "몇몇 종단과 협의를 통해 의전 서열으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현재는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단협에 협조 요청을 하고 종단들과 협의해 태고종의 위상에 맞게 의전 서열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991년 4월 철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2011년 11월 혜초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졸업했고, 2022년 진각종립 위덕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생과장을 시작으로 동두천 광덕사 주지, 마산 원각사 주지와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 교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양주 청련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청련사 안정불교대학 강주, 양주불교사암연합회 명예회장, 고려대 불자교육회 지도법사 등을 맡고 있다.

조계종, '비건 만두' 시대 연다

도반HC · CJ, 4월 18일 MOU 체결
만두 등 간편사찰음식 공동개발
5월 1일부터 승소몰서 판매 개시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대표이사 지현)와 ㈜CJ제일제당은 4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회의실 담소에서 사찰음식 공동개발 및 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누구나 일상에서 간편하게 'K-사찰식' 제품을 즐기는 식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대표이사 지현)와 ㈜CJ제일제당이 업무협약을 맺고 사찰음식 현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4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회의실 담소에서 사찰음식 공동개발 및 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반HC와 CJ제일제당은 2022년 7월부터 국내 사찰음식의 선두적 역할을 해온 서울 진관사 스님들의 지도 · 감리 아래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정통 사찰식 만두를 공동개발 해왔다. 약 1년간 6차례에 거친 감리 끝에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사찰식 만두를 출시하게 됐다.

양 기관은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고 사찰식 본연의 맛을 살린 무(無) 오신채 만두의 개발을 필두로 향후 다양한 사찰식을 손쉽고 편하게 맛볼 수 있도록 가공식품 형태로 공동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CJ제일제당 측은 브리핑을 통해 4가지 핵심 카테고리를 선별, 사찰음식을 선정하고 간편성과 맛을 담아 일상에서도 쉽게 사찰음식을 즐기는 식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주력 상품은 만두와 잡채, 콩고기다. CJ제일제당 측은 "차별화 기술력을 담아 100% 식물성 원료 사용을 통한 환경과 생명의 존엄성 이해는 물론, 자연 재료 그대로의 조화로움을 통해 음식에 불교 정신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CJ제일제당은 햇반 형태의 공양밥을 개발, 사찰 정신을 이은 나눔 트렌드를 만들어가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다. 편리하고 안전한 '나눔 공양밥'을 컨셉으로 한 공양밥은 직접 밥을 짓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공양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원 담아 공양밥 캠페인' 등 다양한 공양밥 문화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도반HC 대표이사 지현 스님은 "㈜도반HC는 종단사업지주회사로서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한다"면서 "사찰, 스님, 신도들의 생활 전반에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익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도 "CJ제일제당은 조계종과 천년을 함께 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템플스테이 활성화, 지역 쌀 활용 등 조계종과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만두 구매는 ㈜도반HC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승소몰(www.seungso.co.kr)과 지점 '승소'에서 5월 1일부터 가능하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천태종, 한국불교 중흥 동반자"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환담

조계종과 천태종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함께 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사진>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천태종 총무원장에 취임하신 걸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 한국불교 발전과 중흥을 위해 논의하자"며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는데 천태종의 역할이 컸다. 한국불교 중흥 불사에 천태종이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덕수 스님은 "한국불교의 종가인 조계종에서 추진하는 불사에 천태종도 열심히 보좌하겠다.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열심히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환담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갈수 스님, 기획국장 홍법 스님, 총무국장 용덕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진경 스님 등이 배석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포교원, 포교원력 선포식 연다

5월 6일 '전법ON,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주제로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5월 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공연장에서 '전법 ON!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를 주제로 포교 원력 선포식을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제8대 포교원 주요 종책 실현 일환으로 2023년을 '포교역량 전문화 원년의 해'로 천명하고, 포교 인력의 자긍심과 전법 원력의 기치를 드높이기 위해 포교 원력을 선포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2월 사단법인 상월결사와 함께 대학생 전법 포교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찰과 대학교를 연결하는 미래포교 사업을 전개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포교 원력 선포는 제8대 포교원의 '전법ON'과 상월결사의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원력구호를 모은 것으로 미래포교에 대한 전방위적인 원력을 하나로 모으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포교 현장 일선에서 활동 중인 포교 · 신도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모두 참여한다. 선포식에서는 봉행사를 시작으로 법어, 전법 상징물 전달식, 전법 선언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 중흥을 위한 불교 각계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부처님 법을 다양한 곳에 전하자는 취지"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청년불자 양성' 중점 추진한다

건학위원회 상임위 회의서 발표
'청년불자 양성' 新핵심사업 대두
장학제도 등 건학이념교육 필수화
재학생에게 '스며드는 불교' 지향
매월 11일 '합장데이' 합장 생활화
'상월결사 108원력문' 대중 보급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4월 18일 교내 건학위원회 회의실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청년불자 양성'을 새로운 5대 핵심사업으로 지정하고 청년불자 발굴과 육성 사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매월 11일을 '합장 데이'로 지정하고 동국인 일상 인사법으로 '합장 인사'를 생활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공개된 '상월결사 108원력문'의 보급과 대중화도 추진된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4월 18일 교내 건학위원회 회의실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추진하는 △학생장학 및 취업 △제2병원건립 △디지털대장경 구축 △중등·고등교육기관 통합 △청년불자 양성 등 5대 핵심사업 추진 상황이 소개됐다. 특히, 건학위원회는 5대 핵심사업 중 사이버대학 설립을 '청년불자 양성'으로 변경하고 청년불자 발굴과 육성에 매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동감·동화·동참 등 대학산하 학생단체와 동국 건학 장학·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내리사랑 장학 등 장학생 선발 시 불교 소양 평가를 도입하고 건학이념교육이 필수로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건학이념교육은 불교교리 교육과 습의(신행), 사찰체험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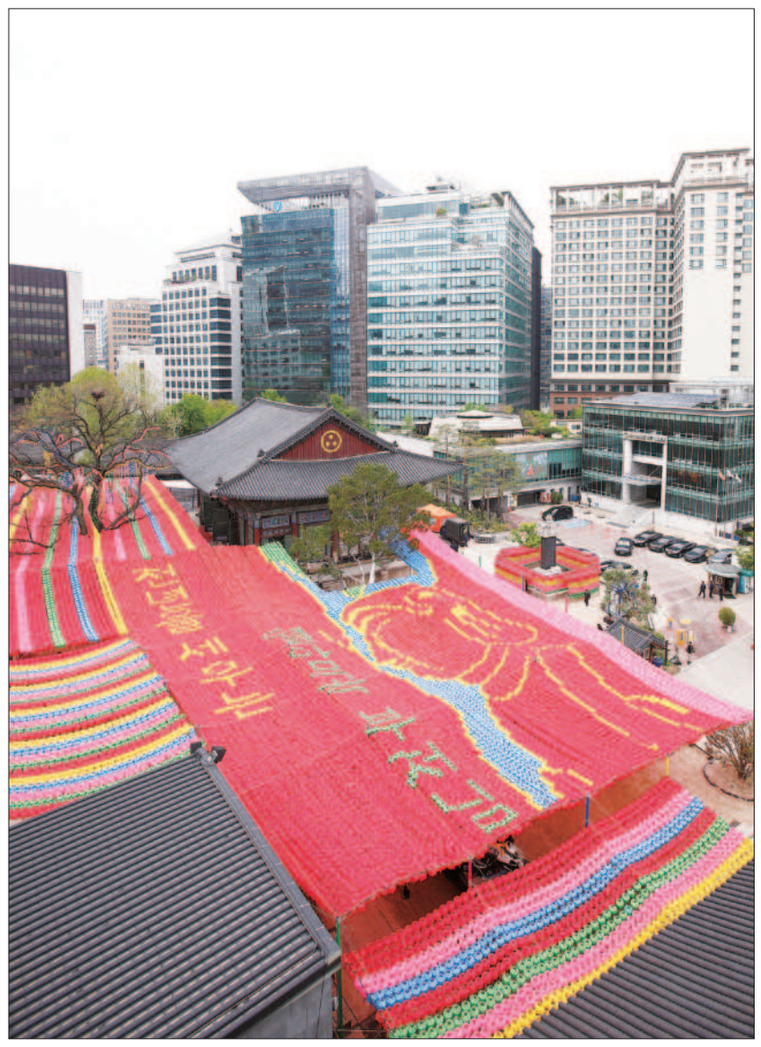
또한 일상불교 확산을 통한 청년불자 양성을 위해서는 동국대 재학생들의 삶에 불교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합장의 생활화를 위해 '합장'을 동국대 공식 일상 인사법으로 공포하고 매월 11일을 '합장데이'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공양기도문 생활화를 위해서는 교내 모든 공양 장소에 '공양기도문'을 게시하고 음원 제작·홍보, 동참 이벤트를 전개한다. 〈부처님생애〉, 〈불교성전〉에 대한 독서 릴레이와 소감문 공모전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 의료원, DUICA, 산하학교 등 기관별 건학위원회들의 중점 사업들이 소개됐다. 특히,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일상불교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상월결사 108원력문' 보급을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상월결사 108원력문'은 지난 3월 23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공개됐으며,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실천 지침이다.

윤재웅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상월결사 108원력문 보급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면서 "생활 속에서 108원력문을 쉽게 접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화하고 108배 정진에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동국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께서 인도를 43일 동안 1167km를 걸었던 목적은 스러져가는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함이었다"면서 "이런 상태로는 50년 후에는 불교는 소멸된다는 위기의식을 상기하고 불교 중흥을 위해 대학생과 청년불자 발굴과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사는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도량등 표어를 '천년을 세우는 열암곡 부처님'으로 정했다. '5㎝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종단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조계사 대중의 결의가 느껴진다.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열기 'UP'

4월 26일 광화문광장서 점등식
올해엔 국보 '수마노탑' 형상화
5월 20일 어울림마당, 연등행렬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적으로 봉축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이하 봉축위)는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Peace of the Mind, World of the Buddha)'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봉축표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안한 일상을 이겨내 온 국민들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부처님 세상이 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시즌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광화문광장 봉축점등식은 오는 4월 26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올해 광화문광장을 한달여 간 빛낼 봉축장엄등은 지난 2020년 국보로 지정된 강원도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형상화했다. 크기는 가로 11m 세로 11m, 높이 20m(탑 18m, 좌대 2m)로 국적, 인종, 연령의 차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수마노탑을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

주요 연등회 행사일정도 확정됐다. 4월 29일 오후 2시에는 조계사와 인사동 일원에서 호기놀이가 진행된다. 매년 청계천에서 열렸던 전통등전시회는 올해부터 광화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봉축장엄등과 함께 서울을 장엄한다. 전시회는 5월 11일부터 5월 28일까지 열린다.

연등회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 회향한마당은 5월 20일 동국대와 동대문, 종로 일원에서 개최한다. 전통문화마당과 연등놀이는 5월 21일 조계사 일원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전국 사찰들은 본격적인 봉축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4월 17일 경내 도량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올해 조계사의 봉축도량등 메시지는 '천년을 세우는 열암곡 부처님'으로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주요 종책인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신성민 기자

"공공영역 성역화 끝까지 책임 묻겠다"

비구니회 4월 18일 입장문

서울시내 공공영역의 특정종교 성역화 지속으로 한국불교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시에 공공영역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비구니회는 4월 18일 '광화문광장의 정체성과 공공영역의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비구니회의 입장문'을 통해 "모든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자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이 천주교 신자의 순교를 알리는 현판으로 도배되고 있다"고 개탄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광화문광장을 천주교 순례지로 만든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과 특정 종교의 설치물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천주교와 지자체가 연대 국민 혈세와 공적자금이 투입돼 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윤겸 수습기자

불교계, 화마 휩쓴 강릉에 자비 손길

조계종, 이재민에 2억 원 지원
비구니회, 인월사에 물품 전해

4월 11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지역에 불교계가 잇따라 성금을 기탁하며 온정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강릉 인월사 복구를 위한 모연에 십시일반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20일, 산불피해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방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자비나눔 기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이어 일주문을 제외한 모든 전각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인월사에 들러 피해현황을 점검한 진우 스님은 주지 재범 스님을 위로하고 "도량이 여법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종단이 한뜻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월사 소실 직후, 발 빠르게 성금모연을 실시한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4월 14일 인월사를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성금모연을 통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주지 재범 스님과 신도들을 위로한 본각 스님은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인월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원력을 갖고 힘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국비구니회도 인월사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월정사와 강릉사암연합회는 4월 17일 인월사를 방문, 교구희망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는 4월 15일 인월사에 피해복구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신도들이 십시일반 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현종 스님은 인월사 피해 현장을 돌아본 뒤 "불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응원하고 있다. 빠른 복구로 인월사가 부처님 도량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와 강릉사암연합회(회장 설암)도 4월 17일 인월사를 방문, 3000만 원을 전달하고 위로를 전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인월사는 그동안 모범 수향도량으로 지역 불교계에 큰 역할을 해온 사찰인 만큼, 복원불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도량 복원에 교구 전체가 한마음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지 재범 스님은 "전국 각지 스님들과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면서 "잘 복구해 수행정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은 4월 20일 강릉산불 피해상황실을 방문, 김홍규 강릉시장에 긴급구호금 25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또 산불 피해를 입은 삼개사 신도 신복녀, 신현주 불자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천태종 신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길 기도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종도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전화 062)375-1820 팩스 062)381-0944

구수한 냄새 솔솔…우리동네 장 가르는 날

종로노인복지관, 장독 분양사업 '장 가르는 날'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4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5층 장마당이 쿰쿰하면서도 구수한 메주 냄새로 가득 찼다. 빨간색 앞치마를 두른 어르신과 지역 구민, 전통문화 체험에 나선 어린이들은 복지관장 정관 스님의 진두지휘 아래 장독에 담긴 메주와 간장을 꺼내며 연신 함박웃음을 지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이 주도하는 종로&장금이 장독분양사업 '장(醬) 가르는 날'의 풍경이다. 이날 행사는 노인주도의 전통 장(醬) 문화를 전 세대에 확산시켜 장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독분양사업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장 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7회차를 맞았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로도 성장한 종로&장금이 사업은 도심에서 어르신들로부터 전통장 담그기를 배우고 직접 장을 담가보는 행사로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 2월 장을 담그고 61일 만에 진행된 이날 장 가르기에는 장문화를 전승하는 '종로&장금이' 서울시민, 선재어린이집 원아까지 총 90여 명이 함께했다. 장 가르기에 앞서 협동조합 '마인드푸드' 이사장 혜범 스님이 1차 장담그기의 전반적인 과정과 전통 장 관리 방법, 주의할 점 등에 대해 특강했다. 혜범 스님은 "옛 어르신들은 장을 담글 때 깨끗한 물을 떠 놓고 간장과 된장이 잘 익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기도 했다"면서 "그만큼 소중한 우리의 전통을 스스로 지키며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통 계승으로 공동체 의식도
판매 수익금 복지사업에 회향
"어르신-젊은이 세대소통 의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4월 17일 종로&장금이 장독분양사업 '장(醬) 가르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잘 숙성된 메주를 건져내 손으로 치대며 된장을 만들었다. 이어 간장을 담는 독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채망과 면포를 얹어 깨끗하게 걸러 항아리에 내려 담았다. 참가자들은 "'음식은 장맛이다'라는 속담처럼, 전통장은 우리 식생활에서 뗄 수 없고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발효음식인 만큼, 장이 맛있게 익어 11월경 장독 비우기에서 잘 숙성된 장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전통장 만들기를 통해 어르신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젊은 세대가 전통장을 접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세대 간 교류의 장이 형성되기를 바란다"면서 "전통적인 음식이 계속 유지돼 계승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로&장금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진 삶의 지혜를 적극 활용, 지역사회에 전통장 전수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마을 브랜드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종로노인복지관은 '종로&장금이'를 통해 장을 담그고 분양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전통장 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장체험관과 장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과 시민들이 직접 만든 된장과 고추장, 간장, 조청류를 판매하며 수익금은 복지사업기금으로 환원된다.

한편 종로&장금이 분양사업은 2002년도부터 외부로도 찾아가 진행하고 있다. 1호점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올해는 2호점 금천50플러스센터, 3호점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에 종로&장금이의 노하우를 가득담아 연중 전통 장 담그기 전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국대, K-명상 선도할 명상센터 문 열다

4월 18일 '동국 선(명상)센터' 개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사업 일환 설립
70여 응용명상 프로그램 운영 예정
"명상 체험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방"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4월 18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혜화관 6층 632호에서 '동국 선(명상)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조계종립 동국대에 K-명상을 이끌어 갈 명상센터가 개원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은 4월 18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혜화관 6층 632호에서 '동국 선(명상)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총장, 정각원장 진명 스님 등 동국대 관계자 및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국 선(명상)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명상 공간이다. 불교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마음 치유수행법인 명상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K-명상'을 문화 콘텐츠 상품으로 개발하여 명상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국민 사업이다.

'동국 선(명상) 센터'는 54m2 규모로 조성돼 2023년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인 응용명상, 선명상 체험 등 70여개 프로그램이 6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접수는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홈페이지(www.mind.dongguk.edu)를 통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에서 "동국 선(명상) 센터는 K-명상을 육성해 명상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동국 선(명상)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대중의 정신수행을 위한 중심으로 거듭나고,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연구와 체험의 산실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기념사에서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간의 삶은 보다 윤택해졌지만, 정신세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마음을 수련하는 명상은 인간과 문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라며 "동국 선(명상) 센터는 동국대의 노력의 결과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동국 선(명상) 센터'는 명상 체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명상 전문 지도자의 현장 지도를 통해 바르고 정확한 명상 프로그램의 체험을 제공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모든 이들이 일상수행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로써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연구와 체험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올해 10월 13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학술(명상컨퍼런스) △명상도서관 △교육(K-명상, K-청소년명상, 행복배달명상) △산업전문가대담 △명상체험(전통명상, 간화선, 응용명상, 명상토크, 좌선실 명상체험, 무문관수행, 걷기순례명상) △3D온라인플랫폼구축 △명상체험부스운영(팔정도)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인재원-대성사, '생활참선명상' 강좌 개설

한국 간화선과 명상 접목해
5월 9일부터 8주 과정 진행
화요일과 토요일 나눠 운영



불교인재원과 우면산 대성사는 서초동 대성사 유리법당에서 4월 19일 참선명상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생활 참선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불교인재원이 서울 서초동 우면산에 위치한 대성사(주지 법안)에서 일반인을 위한 '제1기 생활참선명상 입문과정'을 개강한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4월 19일 우면산 대성사 유리법당에서 대성사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기 생활참선명상 입문과정 개강 일정을 공개했다.

화요반 5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토요반 5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8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생활 참선명상 입문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참선명상은 간화선을 현시대에 맞는 명상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으로 간화선 전통을 맛볼 수 있다.

이번 참선명상에 참가하는 이들은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을 증명법사로 하여, 불교인재원 박희승 교수가 지도한다.

입문과정은 고우 스님의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을 교재로 4주간 기초를 닦은 뒤 5주차에 충주 석종사 선림원에서 1박 2일간 석종사 금봉선원 조실 혜국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 실참하게 된다. 6주차 부터는 생활 속 참선 명상법 등 현대화된 생활참선명상법을 익히고, 마지막 8주차에서는 대성사를 세운 용성 조사의 가르침인 수행공동체에 대한 원력을 세우며 회향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화된 생활명상법을 익히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인재원이 2009년부터 지도하여 체계적인 교육 끝에 배출한 명상지도사 1기들이 대거 생활명상법을 함께 지도한다.

이론교육 등을 진행할 박희승 불교인재원 지도교수(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를 비롯하여, 정혜경 명상전문지도사(불교인재원 · 흥국사 참선명상 강사), 이윤희 명상전문지도사(샤카무니힐링요가원 운영), 석순이 명상전문지도사(불교인재원 · 흥국사 참선명상 강사), 백희인 명상전문지도사(봉은사 템플스테이 외국인 명상팀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프로그램 개최에 대해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우면산 대성사는 불교대중화의 기치를 들어올리신 용성 대조사의 원력이 서려있는 곳"이라며 "이러한 의미가 있으면서도 서울 강남의 서초동이라는 현대화된 곳에서 생활참선명상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은 "많은 사찰에서 스님들이 기도와 더불어 선수행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된 명상법을 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신도교육 일환으로 명상교육도 도입하여, 현대화된 사찰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 것이 용성 대조사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방안이라고도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생활 참선명상 입문과정은 화요반과 토요반 각 25명 선착순 모집으로 회비는 15만원이다. 30세 이하 청년은 무료다. (02)583-1475

노덕현 기자

불교 달력 공모전 대상에 정혜윤 작가

조계종 사업부, 공모전 심사 결과 발표

제3회 불교달력 사진 · 미술 공모전 대상에 정혜윤 작가의 '관세음보살님' 일러스트가 선정됐다.

조계종 사업부와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는 '제3회 불교달력 사진 · 미술 작품 공모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전 대상에는 정혜윤 작가의 '관세음보살님', 금상에 안홍범 작가의 '수행' 사진, 은상에 김상규 작가의 '십우도' 그림과 석보원 작가의 '인도' 사진, 동상에는 순천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의 '연꽃' 그림이 선정됐다. 입선작으로는 박우현 작가의 '마애불' 사진을 비롯한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도반HC는 "이번 공모전에 사진 167명, 그림 45명 등 총 212명의 작가들이 공모전에 지원을 했다"며 "다양한 작품의 수준이 워낙 높아 수상작을 선정하는데 고심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대상 수상자 정혜윤 작가는 "33관음도에서 영감을 얻어 사계절을 담은 그림으로 작품을 구성했다"면서 "진지하고 엄숙하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불교에 친숙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표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혜윤 작가의 '관세음보살님'

한편,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400만원, 금상은 300만원, 은상은 200만원, 동상은 150만원, 입선 수상자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4월 24일 조계사 '담소'에서 열렸다.

신성민 기자

서울 성북구 흥천사, 동국대에 1000만원 기부

건학위 '지역미래불자장학' 전달
성북구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서울 성북구 흥천사(주지 각밀)가 동국대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4월 19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흥천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수여식에는 흥천사 주지 각밀 스님, 흥천사 김춘호 사무장, 법인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지정학 법인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윤재웅 동국대 총장, 하홍열 대외협력처장, 장환영 학생처장과 흥천사 장학생들이 함께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하며, 동국대 재학생 10명을 선정, 장학금을 수여했다. 2021년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이날 38회를 맞이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제도는 지역사찰과 해당지역 학생의 인연을 맺어주는 동국대의 가장 권위 있는 장학제도"라며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동국인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고 자랑스러운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재웅 총장은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을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신다"며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여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여 주변에 잘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지 각밀 스님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작으나마 동참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한솔(불교학부 4학년)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흥천사와 각밀 스님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한솔 학생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흥천사와 각밀스님께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선순환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2월과 3월 43일 간 1167km, 불교 8대 성지를 순례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현지 영상을 장학생들과 함께 시청하며 순례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5일 취임 200일을 맞아 미래세대와의 소통과 자비실천활동을 펼쳤다. 광주 자비신행회가 주최한 요리교실 참여한 이후 친해진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진우 스님.



광주 자비신행회가 개최한 요리교실 이후 진우 스님과 아이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배식봉사도 진행했다.



진우 스님이 담양 용흥사에서 108배 정진을 하고 있다.

108배·소통으로 맞은 진우 스님 취임 200일

담양 용흥사서 108배로 하루 시작
"108배 자신 돌아보는 시간" 강조
광주 자비신행회서 청소년과 소통
피자 요리 수업, 배식 봉사 함께 해

담양 · 광주=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4월 15일 취임 200일을 맞았다. 지난해 9월 28일 취임 이래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108배로 취임 200일 연 진우 스님은 전남 광주 지역 청소년들과 소통 · 자비실천 행보를 이어갔다.

취임 200일, 어김없이 108배

총무원장 취임 이후 시작한 '108배 정진' 은 200일이라고 빠지지 않았다. 오전 7시 30분 담양 용흥사 대웅전에서 진행된 진우 스님의 정진에는 용흥사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108배를 마친 진우 스님은 소참법문으로 취임 200일 소감을 대신했다.

"취임 200일이라고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불교는 근본이 자비에 있음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는 '모든 중생이 일체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는 자비행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지만 아직도 사회 소외계층들 많이 있다. 불교와 우리 종단은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자신이 왜 108배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신도들에게 소개했다. 스님은 "108배 정진을 하며 부처님이 강조하신 자비심을 모든 사람들이 갖길 바라는 첫 번째 서원을 세웠다. 두 번째로는 한국불교 중흥과 부흥을 발원했다"면서 "세 번째로는 출가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108배 정진을 권했다. 진우 스님은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간다. 결국 내가 문제다. 남을 탓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결국 내 자신이 평안해야 한다. 내 업장을 녹이고 괴로움이 없어야 자리이타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08배 정진이 좋다"면서 "108배 정진을 많은 사람들 함께 하길 바란다"고 권했다.

지역 청소년 소통… 기금 전달도

108배 정진을 마친 진우 스님은 광주광역시로 이동해 미래 인재인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자비행을 펼쳤다.

진우 스님은 지역 불교 단체인 (사)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형)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자비신행회는 광주 지역 복지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교육, 구호산업 및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복지나눔사업을 비롯해 소외계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불교 공동체다.

진우 스님은 자비신행회의 '나르샤(날아오르다 순우리말) 프로젝트' 인 토요배움학교 학습과정을 둘러보고 요리교실에 참가해 어린이 청소년 28명과 함께 피자 만들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치마를 직접 두르고 조장이 된 진우 스님은 아이들에게 칼 사용법을 가르치며 함께 피자를 만들었다. 동행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들도 아이들과 피자를 만들며 소통을 이어갔다.

피자 완성 직후 진우 스님은 "아이들이 너무 명랑하고 밝다. 함께 피자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니 엔돌핀이 샘솟는 것 같다. 너무 즐겁다"며 밝게 웃었다.

함께 피자를 만든 양시아(광주 동진여중 1학년) 학생은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됐는데 스님과 함께 해서 재미있고 즐거웠다"면서 "스님에게 식칼 사용법도 배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방문에 선생님과 아이들은 취임 200일 축하 떡케이크와 기념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진우 스님은 100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을 증정하며 미래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원력과 공심으로 지역 사회활동 운영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비신행회를 격려하기 위해 아름다운동행 자비나눔 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진우 스님과 부실장 스님들은 자비신행회 1층 빛고을 청소년식당에서 100명의 아이들을 위한 점심 배식을 진행하며 공양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진우 스님의 방문에 지역 불교계는 많은 힘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삼옥 자비신행회 상임이사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방문해주셔서 선생님과 학생, 자원봉사자 모두 큰 격려를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자비신행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전할 수 있는 불교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 "이젠 불교중흥 종책 본격화"

자비신행회 방문행사서 취임 200일 소회 밝혀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불교를 중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5일 광주 자비신행회 방문 행사에서 취임 200일 축하 떡케이크와 기념 꽃다발을 전달받은 뒤 이 같이 소회를 밝혔다.

"1700년 전 한반도에 도래한 불교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민족성과 자비 정신에 영향을 줬고, 불교의 자비 정신은 한국인의 DNA에 담겨져 있다"고 전제한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가 다시 살아나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주요 종책 과제인 종단 표준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소개했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함께 도심 명상센터 건립,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종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진우 스님은 참선, 명상 전문가들과 직접 스터디를 하며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참선을 바탕으로 한 종단 표준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템플스테이와 향후 건립될 명상센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진우 스님의 복안이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은 명상의 본류이자 원류가 불교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국불교가 융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앞으로의 각오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이제 취임 200일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다"면서 "지금부터는 한국불교가 중흥할 수 있는 종책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4월 15일 취임 200일을 맞아 방문한 광주 자비신행회에서 취임 200일 소회를 밝히고 있다.

海印寺
生前預修齋

귀의 삼보 하옵고,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불기 2567년 계묘년 윤달을 맞이하여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해인사에서 봉행되는 생전예수재는 팔만대장경에 수록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전예수재를 봉행하여 내세를 위한 공덕을 쌓고 참회를 통해 업장소멸하여 사후에 고통과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불교의 전통 의식입니다.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생전예수재의 인연을 맺어 세상에 둘도 없는 무량한 공덕을 쌓는 불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해인사 주지 혜일 정례



법보종찰 해인사

입재 2023년 3월 26일(일) 오전10시
초재~6재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회향 2023년 5월 13일(토) 오전 10시
장소 해인사 대적광전

동 참 금			
설판재자	大설판 100만원	中설판 50만원	小설판 30만원
생 축	1인 3만원		
영 가	1위 1만원		

▪문의 및 접수 접수실 055)934-3105~6
▪계 좌 안 내 농협 351-0744-6572-93 (예금주 : 해인사)



국보 제206호 '불설예수시왕생칠경 변상(해인사 소장)'

“임진왜란 호국영령이시여, 극락왕생하소서”

4월 16일, 거제도 장목항 수륙대재 열려

부산불교대학 · 화엄승가회 주최
칠전량 등 왜란 호국영령 위무
왜란 전사한 호국 무명 영가위해
부산 · 거제시민 3000여 명 동참

거제도=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4월 16일 거제도 장목항 특별무대에서 ‘제1회 칠전량 · 장문포 해전 호국영령 수륙대재 및 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번 수륙대재는 임진왜란 당시 죽임을 당한 조선 수군의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이다. 칠전량 해전에서 사망한 조선 수군은 당시 1만여 명으로 집계된다. 대규모로 수륙대재를 봉행하며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륙대재에는 학장 범혜 스님과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화엄승가회 소속 30개 사찰 스님과 불자,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회원을 비롯한 지역민 등 3000여 명이 동참했다.

수륙대재는 사물패 길놀이를 시작으로 △인례 △봉행위원장 인사 △참배 △승무 △옹호게 △사자단 불공 △육법공양 △화엄경 약찬게산왕경 · 용왕삼매경 독송 △신묘장구대다라니 작법 △상단 · 중단 의식 동음창화 △법어 △축원 △신중퇴공 △대령 관욕 △금강경찬 3편 송주, 수생경 독송 △수아차법식 △점안의식 △마구단(소대) 순으로 진행됐다. 수륙대재에 이어 생전예수재와 방생법회를 봉행하며 계묘년 윤달을 기념하고 복덕을 기원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2부 행사에서는 행사를 기념하는 인기가수 진시몬의 공연도 이어졌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가 4월 16일 거제도 장목항 특별무대에서 ‘제1회 칠전량 · 장문포 해전 호국영령 수륙대재 및 음악회’를 봉행했다.

불자들은 행사에서 승보공양을 올리며 스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렸다. 승보공양은 화엄승가회 소속 옥천암 불자가 공양금을 보시했다. 스님들은 참여한 불자들이 수행 정진 할 것을 당부하며 마정수기도 함께 진행했다. 마정수기에서 스님들은 향탕수가 들어 있는 바루를 각자 들고 신도들에게 다가가 이마에 관정했다. 불자들은 관정을 받으며 합장을 하고 참회진언을 염송하며 호국영령의 극락왕생과 생전예수재 및 방생을 통한 공덕을 기원했다.

증명법사인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는가?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관계와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며 “물질에 집착, 사람에 대한 애착을 놓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법문했다. 이어 “바다에서 죽음을 맞은 이름없는 수군들을 위한 호국영령재는 봉행된 적이 없었다. 그분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하고자 수륙대재를 봉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봉행위원장 범혜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전멸한 당시 이 바다는 불바다를 이루었고 이 푸른 바다빛은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통곡의 아픈 역사와 한을 품고 있는 장소이다”며 “우리 한민족, 우리 조선을 지키기 위해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칠천량 해전은 임진왜란 해전 중 유일한 패전으로 기록된 전투이다. 당시 삼도수군통제사 원균이 160여 척의 전선을 이끌고 일본 군선 700여 척의 공격에 대항했지만 150여 척의 전선과 함께 병사 1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투이다.

동국대 생활풍수 동문, 첫 학술세미나 열다

동국대 생활풍수CEO 총동문회,
4월 16일 ‘생활풍수’ 방향 모색

매장문화 퇴조 속 풍수 변화
묘자리에서 생활풍수로 전환
동국대 교수 등 전문가 초빙
한국 풍수지리 새 방향 모색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과정 동문들이 생활풍수 활성화를 위한 제1회 풍수지리 세미나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과정 동문들이 모여 풍수지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제1회 풍수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장문화로 대변되는 장묘문화 변화에 맞춰 생활풍수로의 전환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지 눈길을 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 총동문회(회장 도심 스님, 이하 동풍 총동문회)는 4월 16일 서울 방송통신대학 열린관에서 제1회 풍수지리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동풍 총동문회 세미나에는 동풍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을 비롯하여 김익환 총동문회 운영위원장, 총동문회 고문 목탁 스님(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사장), 고문 무각 스님(통일불교조계종 종정), 서병열 종정협의회 사무총장, 배영희 총동문회 사무총장, 최병환 동원푸드 대표 등 동풍 동문들과 고성환 방송통신대 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를 주최한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은 1부 개회식에서 “장례문화 변화로 매장문화가 외면당하고 화장문화가 대세가 된 지금 풍수지리도 변화가 필요했다. 음택보다는 양택 위주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풍수지리의 생활화를 위한 선후배간의 바램이 모여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고문 목탁 스님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동문회가 활성화 되어 하나된 힘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 동문 개개인의 마음이 더없이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고문 무각 스님도 이런 동문들에 대해 “풍수지리는 미신이 아닌 선조들의 경험이 담긴 지혜의 소산으로 생활 속에서 접목할 부분이 많다”며 “1회 세미나에 그치지 말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동문들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고성환 방통대 총장은 “흔히 명당을 볼 때 돈이 모이는 자리와 권력을 누리는 자리는 다르다고 한다. 이는 돈과 권력을 모두 쥐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이라며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모인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한국 풍수지리가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방송통신대도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동풍 총동문회는 개회식에서 평생교육 등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대에 방통대 50 프로젝트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학문 발전을 위해 학술연구위원장으로 박시익 박사를 추대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풍수의 재정립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지영학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조선시대 광산 김씨 가문의 음택 풍수 특징 연구’ △박성대 대구가톨릭대 지리학과 겸임교수의 ‘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양택 풍수’ △양상현 교수의 ‘정통풍수사상의 생지명당에 현대과학적 접근’ △이종천 교수의 ‘한국 풍수지리의 현재와 백년대계를 위한 고언’ △철학박사 세준 스님의 ‘禪풍수로 만나는 삼보사찰’ 등이 발표됐다.

이종천 교수는 “풍수지리의 궁극적 목표는 탈신공개천명으로 운명을 바꾼다는 것인데, 아주 특별한 일점의 터와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적선과 적덕을 쌓은 이에게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통도사, 계묘년 윤달 생전예수재 회향

4월 16일, 경내 일원서 봉행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4월 16일 경내 일원에서 계묘년 윤달 생전예수재를 회향했다. 통도사는 지난 2월 27일 입재했으며 49일 간 봉행하며 불자들의 공덕을 강조하고 기도 정진할 것을 강조했다.

회향 법석은 전통방식에 따라 도량건립, 도량결계, 소청상위, 소청중위, 소청하위, 권공, 시식 후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생전예수재 전통의식을 위해 통도사 염불원 스님들이 전통의식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법을 선보였다. 통도사 불자들은 통도사 염불원의 장엄한 작법에 함께 큰 박수로 화답했으며, 염불 속에 느낀 환희심을 표현하듯 어깨를 덩실거리며 춤을 추기도 했다. 마치 생전예수재가 축제와 찬탄의 한마당으로 마무리 되는 듯 불자들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통도사는 4월 16일 경내 일원에서 계묘년 윤달 생전예수재를 회향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사후를 위해 미리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도 있고 전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지은 빚을 갚는다는 의미도 있다”며 “하지만 핵심은 이 시대에 탐진치 삼독을 여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청정심을 회복하며 모든 중생이 이익이 되도록 보살심을 실천수행하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주지스님은 “세 번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다. 첫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전통작법을 재현하고 도움을 준 염불원장 영산 스님과 염불원 스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과 동주도반에게 박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서 자신을 위해 지내는 재로서, 윤달이 있는 해에 사찰에서 시행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재의식 중 하나이다. 수륙재, 영산재와 더불어 우리나라 불교 3대 재회(齋會) 중 하나이고 천도재 성격을 가지지만 망자를 위한 천도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사후를 위해 진행하는 의례로 ‘생전(生前)에 미리(豫) 닦는(修) 재(齋)’를 의미한다. 자신의 극락왕생을 위해 마련하는 재의식으로 동참자 스스로가 의례의 주인공이 되어 의미가 크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정대선사 문도, 범어사 기초수행금 후원

4월 14일, 부도탑 제막 성금모아 1000만 원 전달

범어사 선덕 용산당 대정대선사<사진>의 수행 정진을 기리기 위해 문도 스님들이 4월 14일 범어사에 기초수행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대정대선사의 부도탑을 준비하며 모은 성금이며, 부도탑 제막에 앞서 대정대선사가 평소 강조한 인욕과 청정수행의 유지를 잇는 마음으로 마련했다.

문도를 대표해 본원 스님은 “대정대선사는 철저한 수행정진과 대중화합을 당부하셨고 항상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라며 강조하셨다”며 “큰 스님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문도스님들이 부도탑과 기초수행금을 십시일반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용산당 대정대선사는 2020년 12월23일 세수 90세, 법랍 72세에 원적에 들었다. 대정대선사는 1949년 출가해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선사로부터 ‘이뭣꼬’ 화두를 잡아 본격적으로 정진했다. 모악산에서 생식으로 토굴 수행을 하면서 화두 삼매를 경험했으며, 범어사, 해인사 백련암 등에서 방부를 들여 수행했고 지리산에서 59세까지 생식과 벽곡으로 인욕 수행을 실천했다.



1979년 이후 부산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선덕으로 주석해왔다. 후학들에게 인욕을 당부했던 대정대선사는 2020년 12월 23일 아침 공양 후 홀연히 원적에 들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남해 용문사, 생전예수재 회향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가 4월 16일 경내에서 보물 제1446호 석가삼존 괘불도를 9년만에 사부대중에게 선보이며 생전예수재를 회향했다.

생전예수재에는 용문사 주지 승원 스님, 승학사 종욱 스님, 어산스님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용문사는 석가삼존 괘불도를 헌괘하고 고사단, 마구단, 각종 번을 장엄하여 종욱 스님을 비롯한 어산스님들이 생전예수재를 집전했다.

용문사 주지 승원 스님은 “용문사는 조선 숙종 때 수국사로 지정된 사찰이며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호국사찰”이라고 소개하며 “각자 자신의 몸을 받기 이전과 현재의 업을 씻어내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많은 공덕을 짓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년고찰 용문사 보물 제1446호 석가삼존 괘불도는 삼베바탕에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문수 · 보현보살이 협시하는 삼존도 입상이다. 1769년 순천 선암사 중심으로 활동한 쾌윤 스님이 불화조성을 맡아 인물형태의 표정과 신체 비례 크기에 있어 18세기 불교미술의 대표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문화재 보존처리하고 점안법회 후 9년 만에 처음 공개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미소원 청년회, 장애아동 돕기 일일맛집



4월 14일, 미소원 법당서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회장 류강렬)이 4월 14일 미소원에서 ‘장애아동 돕기 미소원 청년회 일일맛집’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과 미소원 회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행사는 축사 및 미소원 청년회 회장이 · 취임식이 진행됐다. 신임회장은 불국토 산하 개금종합사회복지관장을 맡고 있는 류강렬 신임회장이다.

류강렬 신임회장은 “무엇보다 청년의 활동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종교에서도 그 성향을 뚜렷히 보여지고 있다”며 “앞으로 미소원 청년회는 불교의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전국 대표 불교 청년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포부를 전했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청년 불자 양성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인재 불사이다”며 “역량을 강화하고 나눔과 발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이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국대 경주병원, 비전선포식 개최

동국대 경주병원은 4월 17일 원내 본관 주차장에서 ‘제22대 병원장 취임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정주호 동국대 경주병원장은 비전선포식을 통해 “급성기질환 진료중심 권역거점병원으로서의 책임수행을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진료환경 확충, 우수한 의료진 초빙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중증외상센터 활성화를 목표로 제반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 등 많은 내외 인사들이 함께했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급성기질환 진료중심 지역거점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12월 뇌졸중 집중치료실 개소를 시작으로 부인과 복강경 수술 전문센터, 호흡기 전문센터 등의 조성 사업 준비를 하나씩 펼쳐 나가고 있어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진표 · 진묵 · 탄허 정신’ 조명하다

신라정신연구원 학술세미나
김방룡 충남대 교수 등 참여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신라정신연구원은 4월 17일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넉넉하고 유순한 ‘들판정신’ 김제 만경문화 원류(源流) 찾기 ‘진표 · 진묵 · 탄허 정신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제 만경 출신의 대표적 선지식인 진표율사, 진묵대사, 탄허 대종사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사)신라정신연구원은 4월 17일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넉넉하고 유순한 ‘들판정신’ 김제 만경문화 원류(源流) 찾기 ‘진표 · 진묵 · 탄허 정신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전일환 前 전주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미륵정신과 진표, 진묵’, 안후상 노령역사문화연구원장의 ‘보천교의 민족운동과 金堤와 김홍규 父子’, 신정일 우리 땅 걷기 이사장의 ‘금산사의 진표 율사와 깨달음의 길’이 발표됐다.

탄허기념박물관장 혜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는 현실을 만들었고 현실은 또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과거를 자랑하는 것 그 자체가 미래를 여는 지혜가 된다”며 “오늘 진표, 진묵, 탄허 스님의 정신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고 세계인이 따르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방룡 교수는 “김제 · 만경 지역에서 지역문화 정체성을 미륵신앙에서 찾지 못하는 이유로 첫째 지역민의 관심 부족. 둘째 정치적으로 표심과 연결되지 못함. 셋째 증산교와 관련성이 깊어 금산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진표 스님이 〈송고승전〉에 수록됐다는 점, 김제 만경현에 속했던 고군산도가 중국과의 중요한 해상로 거점이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고군산도와 진표와의 관련성을 부각시켜 진표 · 진묵과 관련된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성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금산사가 익산의 미륵사지, 증산교의 미륵불사상, 원불교 및 신흥종교의 미륵사상을 포용한 미륵신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후상 노령역사문화연구원장은 “탄허 스님이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간방사상(艮方思想)을 설파한 것은 보천교의 영향이다. 특히, 김제는 정읍과 함께 전국 유일의 민중종교, 민족종교의 성지라는 종교사상적 정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일 이사장은 “길은 교통수단으로서의 길, 방도를 나타내는 길,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길로 분류하는데, 전체를 걸어야 전체를 얻는다.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었던 사람들의 큰 깨달음의 길을 찾아가 걸어보자”고 역설했다.

김동수 이사장은 “선사들의 고매한 정신세계야말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전라정신의 원형이요. 더 나아가서는 배달민족으로서의 한국적 정신의 원류이다. 선현들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지속되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 역사문화의 정통성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김제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희망하며 문화도시 김제의 위상이 만방에 펼쳐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사)전라정신연구원은 2019년 6월 16일 설립된 이후 ‘전라도의 혼이 깃든 역사, 문화, 예술, 인물 등을 연구 · 조사해 민족정신이 투철한 민주문화시민의 상 건립’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현재까지 전라정신 연원을 탐구하는 학술 기관지 〈전라정신 4집〉을 발간했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장에 연규 스님 취임

“종지종풍 진작 사회선도 마중물
지역 원융화합 불교위상 높일 것”



여수불교사암연합회 신임 회장에 여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이 취임했다. 사단법인 여수불교사암연합회는 4월 17일 여수 히든베이호텔 대연회장에서 신임 회장 연규 스님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회장 연규 스님은 취임사에서 “부처님의 종지종풍을 진작시켜 종교가 사회를 선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수 지역 대중의 원융화합과 끊임없는 수행정진으로 지역 불교를 계승 발전시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위화감을 소멸시키고, 불자와 여수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종교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는 오랜 기간 지역 불교를 이끌었던 흥국사 前 주지이자 화엄사 조실 명선 스님이 입적해 연규 스님을 후임 회장으로 임명했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는 이날 신임 위재춘 신도회장을 위촉하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 1000만 원을 여수시에 전달했다.

한편 연규 스님은 은해사 기획국장, 대구 운흥사 주지, 선본사 갓바위 부주지, 의왕 용화사 주지, 부산 해동용궁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화엄사 총무국장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여수 향일암 주지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본말사 합동수계산림법회 봉행

“화엄행자답게 참 불자 되길…”
용천사 등 말사 2000여 명 참석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는 4월 15일 경내 각황전과 대웅전 앞마당 금강계단에서 ‘화엄사 본 · 말사 합동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前 조계종 전계대화상인 성우 스님를 비롯해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 회주 종열 스님이 전계아사리,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로 참여하고, 7증사에 종일, 명섭, 종지, 종걸, 종과, 명완, 종삼 스님 등이 계단에 올라 수계산림법회를 증명했다. 또한 유나 종곡 스님과 진표 스님이 인례로 이날 참여한 사부대중에게 보살계를 비롯해 불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을 내렸다.

본행사인 수계법회는 인례자의 거향찬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이 장궤합장한 가운데 예경삼보, 명청성법, 정청사법, 개도계법, 사불괴신, 참회과법, 연비 등이 이어졌다. 이어 인례사의 참회진언을 시작으로 화엄사 경내에 참가자들의 진언 합송이 가득한 가운데 연비가 진행됐다.

주지 덕문 스님은 “오늘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 여법하게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지금부터는 오늘 참여한 수계불자들이 화엄행자가 되었다. 앞으로 화엄행자답게 몸과 마음, 행이 일치되는 참다운 불자가 되기 바란다”며 “오늘 행사에 참여한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부산 용천사, 의왕 용화사, 인천 영웅사, 사자암, 부산 해동용궁사, 보현사, 정광중고, 금선사, 자성사, 흥국사, 용문사, 보광사, 팔공선원, 도솔암, 향일암, 도림사, 관음사, 정혜사, 빛고을포교원, 천은사, 사성암, 서산사, 태안사, 흥륜사, 동화사, 한산사, 은적사, 백운사, 천태암 등 전국 각지의 화엄사 말사 대중 2000여 명이 각황전과 대웅전 마당을 가득 채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재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재탄생

불교계 최초, 전국 2번째 개원
입원형 25병상, 가정형 허가 득



울산 정토마을 자재병원(이사장 능행)이 4월 14일 개원식을 열고 불교계 최초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재탄생했다.

자재병원은 2016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양병원 시범사업 1차 모집을 통해 호스피스 10병상을 허가받아 7년간 호스피스환자들의 의료적인 케어뿐 아니라 영적 돌봄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2022년 11월 ‘자재병원’으로 명칭을 변경, 같은 해 12월 28일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입원형 16병상과 가정형을 지정 허가받았고 현재는 입원형 25병상과 가정형을 운영하고 있다.

청도 대감사 회주 설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자재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은 인도의 테레사 수녀님이나 대만의 자제정사 증엄 스님 같이 대단히 뿌듯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수행자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건 없는 이해와 용서와 친절 그리고 서로 나눔과 이에 봉사하는 것, 본래 우리가 함께 명상으로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대승불교를 바탕으로 한 명상요법”이라고 강조했다.

자재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은 “정토마을 자재병원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정토마을을 아끼고 사랑하고 지지해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로 가능했다”며 “자재 병원이 생애 말기 환자들을 돕고 그분들의 삶의 질과 죽음의 질을 높이는 데 신뢰를 가지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좋은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사)세상을 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상임이사 정오 스님(기장 고불사), 이사 보혜 스님이 승가 요양 요사체 미타원건립 후원금 1000만 원을 능행 스님에게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각국사 탄신 845주년 다례재 봉행



화순을 대표하는 선지식인 진각국사 혜심 스님 탄신 845주년을 맞아 추모 다례재 및 경로위안잔치가 열렸다.

(사)진각국사선양회(대표 대현)는 4월 18일 전남 화순문화원 들국화 강당에서 고려 2대 국사인 진각국사의 뜻을 추모하고, 공덕을 찬탄하기 위한 나눔 잔치를 봉행했다.

대현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불교는 예로부터 국난을 당하거나 위기에는 항상 중생 곁에서 호국애민의 살신정신을 구현해 왔다”며 “혜심 스님은 고려 중기 무신권력 속에서 백성의 안녕을 위해 헌신한 화순의 큰어른”이라고 강조하며, “오늘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 무료급식 봉사



군산 성흥사와 성흥사 신도회,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은 4월 17일 구 군산역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과 김승수 신도회장을 비롯한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원들은 경로식당을 찾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홀몸어르신 30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흰쌀밥과 미역국, 도토리 묵 무침, 콩나물 무침, 김치로 구성된 식사를 대접한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원들은 배식 봉사와 설거지, 주변 정리까지 마무리했다.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것도 포교의 한 방편”이라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산 정법사, 생전예수재 회향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가 4월 17일 2층 만불보전에서 생전예수재 특별정진기도회를 회향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정법사 사부대중은 49일간의 기도를 통해 생전에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참회로서 소멸하고 내생에 무량공덕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광우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지성의 영역이고 연구를 하면서 감응하는 것은 감성의 영역이고, 지성과 감성의 영역이 합쳐져야 영성이 열리고 영성은 곧 불성”이라며 “영성과 불성이 깃들어 있지 않은 신앙은 전부 헛것으로 기도를 통해서 지성의 영역과 감성의 영역 3박자를 갖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흠뻑 받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성 운흥사, 호국영령 · 국태민안 영산대재

임진왜란 때 지역 승병조직 본거지
300년 동안 이어져 코로나로 중단



고성 운흥사는 4월 17일 ‘제293회 호국영령과 국태민안을 위한 운흥사 영산대재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운흥사 주지 월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국난극복을 위해 싸우다 숨진 승병과 의병들의 영혼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살아 숨 쉬는 우리 지역의 문화가 여법하고 숭고한 의미로써 범국민적 문화행사로 이어져 왔다”며 “한줄기 빛으로 가신 그들의 국난극복을 위한 업적과 가치를 재조명하여 나라사랑의 정신을 계승하여 원수도 아픔도 없는 생명의 근본자리에서 꽃처럼 웃을 수 있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300년 동안 봉행해 온 영산대재가 코로나19로 중단될 위기를 맞았지만 멈추지 않았던 것은 국난극복을 위해 희생하신 승병, 관군, 수군들의 영혼과 호국영령의 넋을 천도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호국불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멈출 수는 없다는 주지스님 이하 사부대중의 원력”이라고 치하하고 “옳은 일과 의로움, 즉 정법을 구현하기 위해 용맹정진하신 사명대사와 6000여 명의 스님들의 위법망구 신심을 기리는 운흥사 영산대재는 지난 300년을 이어 앞으로도 세세생생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운흥사는 임진왜란 때 이 지역 승병의 본거지였으며 사명대사의 지휘 아래 6000여 명의 승군이 운흥사에 머무르면서 왜군과 전투를 벌인 호국성지도량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사명대사와 수륙양면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세 번이나 방문했다. 임란 때 병화로 소실된 것을 효종 2년(1651년)에 중창했으며, 임란 후에는 불교의 화원 양성소로서, 조선불화가 3인 중 하나인 의겸을 배출한 불교회화의 산실이기도 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봉축위, 연등축제 계획 발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 전라북도 연등축제가 불교만의 축제가 아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로 봉행된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 진성)와 불교문호보존회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계획을 밝혔다.

전북봉축위는 올해 연등축제의 주제를 ‘꿈 타는 연등회’로 정하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봉축위원회는 연등축제를 통해 역사적 ·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진정으로 계승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신이 직접 만든 등을 가지고 참여하는 생동감 있는 축제, 단순 종교행사가 아닌 전통 문화콘텐츠를 잘 살린 시민의 문화축제,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5월 13일 전주 전라감영에서 열리는 연등축제서는 오전 10시부터 연등 · 지화(紙花) 만들기, 금산사 미륵전 공포 조립체험, 다도&명상체험, 수수팥경단 만들기 등 13개의 체험행사가 열린다.

또 그동안 전주 덕진공원에서 열렸던 전북 어린이 큰 잔치를 연등축제 행사장으로 옮겨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 도민 노래자랑을 진행한다.

봉축법요식은 식전행사로 전북연합합창단의 합창제가 열리고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을 비롯한 가급 기관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봉축법요식이 봉행된다.

법요식 이후에는 연등을 들고 전라감영을 출발해 영화의 거리, 오거리 광장, 팔달로를 거쳐 다시 전라 감영으로 돌아오는 2.2km의 구간에서 제등행렬이 펼쳐진다.

제등행렬에는 전주 한지로 제작된 30여 개의 대형 장엄등과 각자 만든 특색 있는 연등이 전주 거리를 수놓게 된다. 이어 배아연, 박현빈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은 흥겨운 축제의 대미를 작성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봉산 용주사, 생전예수재 봉행



경남 하동 월봉산 용주사(주지 지묵)는 4월 13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이날 생전예수재에는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수산자비선원 법상 스님, 포항 여래사 정규 스님 등 대중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이 날 예수재는 신중작법을 시작으로 고사단 헌전, 행첩소 봉송, 상단불공, 법문, 중단헌공, 함합소, 운마거십필등중, 시식, 봉송 회향의 순으로 전통적인 장엄과 의례로 재의 의미를 더했다.

묘허 스님은 법문을 통해 “생전예수재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자리이타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신앙이라기보다 수행에 가까워 전생의 업과 현생의 업을 지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달라이라마 성추행 논란…“오랜 풍습” 반박도

2월 28일, 다람살라 행사 촬영 유포
소년에 “내 혀 빨아보라” 장면 논란
티베트 전문가 “문화 몰이해일 뿐”
달라이라마, 사과 메시지 발표하기도

박영빈 객원기자


논란이 된 소년과 달라이라마가 만나는 장면. 사진출처=VOA 방송화면 캡쳐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 달라이라마가 소년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유포되면서 서구권을 중심으로 달라이라마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는 티베트 문화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오해라는 전공자들의 반박이 더해지면서 논란은 진정 되고 있으며, 달라이라마 측은 소년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일련의 논란에 대해 ‘BBC’ 등의 해외 외신들은 특별보도를 이어나갔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 2월 28일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촬영된 것이다. 당시 달라이라마는 인도의 부동산 회사인 M3M그룹 산하의 자선재단이 운영하는 기술학교의 졸업생들을 만나는 행사에 참석했다. 문제의 장면은 달라이라마가 행사에 참석한 소년을 안고 볼과 입을 맞추고서 혀를 내밀어 “내 혀를 빨아보라”라고 말한 장면이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서구권을 중심으로 달라이라마 소년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지난 10일, 공식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를 소년과 소년의 가족, 그리고 세계의 형제자매들에게 사죄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하여 티베트 불교나 문화를 연구하는 전공자들을 비롯해, 티베트 문화권의 사람들은 “달라이라마가 사과할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티베트 문화나 언어를 모르는 서구의 눈으로만 보았기에 생긴 논란”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과 로버트 마이어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람들은 달라이라마가 소년에게 ‘내 혀를 빨라’ 혹은 ‘내 혀를 먹으라’라고 말한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티베트 문화권에서는 노인세대가 어린아이들을 놀리는 일상적이고 친근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며 “달라이라마가 사과할 만한 일도, 잘못한 것도 없다”고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여기에 더해 많은 티베트 전공자들은 “티베트의 오래된 풍습에 타인에게 악의가 없음을 보이는 행동 중 하나로 혀를 내밀어 보이는 인사법이 있으며, 달라이라마 나이대의 노인들에겐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의 영상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반박이 이어지면서 전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인도인 소년이 먼저 달라이라마에게 “달라이라마를 안아봐도 되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달라이라마가 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오히려 소년이 달라이라마의 품에 파고들려는 것을 달라이라마가 가볍게 밀어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행사가 끝난 직후 소년은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달라이라마와의 만남은 너무나 멋진 경험이다. 긍정적인 힘을 많이 받았다”며 기뻐했고, 소년의 어머니 역시 “오랫동안 달라이라마를 뵙길 원했고, 이렇게 축복을 받은 기쁨을 뭐라 표현 할 수 가 없다”며 감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티베트인들 역시 서구권의 거센 비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티베트의 유명작가 체링외셀은 “달라이라마는 인도에서나 외국에서나 천진하게 혀를 쑥 내밀어 사람들을 곧잘 웃기게 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입을 맞춰주는 것도 오랫동안 달라이라마가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해오던 방법이다. 이 노스님의 위신에 흠을 잡기 위해 노력한 중국 공산당도 잡지 못한 흠을 냉철한 서양인들이 잡아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청년 홍법대사상’ 최초 공개에 순례자 줄이어

日 슛샤카지, 불상 3점 공개
홍법대사 탄생 1250주년 기념


주지스님도 친견한 적 없던 불상들이 최초로 대중들에게 공개 됐다. 사진출처=시코쿠 신문

홍법대사 쿠카이의 탄생 1250주년을 기념해 가가와현 젠츠지시에 있는 슛샤카지(出釋迦寺)에서 지금껏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불상들의 대중공개가 결정됐다. 주지스님조차 첫 친견이라는 불상들의 이야기를 ‘산요방송’, ‘시코쿠 신문’ 등의 현지 언론들이 특별 보도했다.

홍법대사 쿠카이가 불도에 입문할 것을 결정하고 자신의 서원을 세웠다고 알려진 가하이시야마(我拝師山). 해발 481m의 낮은 산으로 그 기슭에 시코쿠 88개소 순례길 중 73번 사찰인 슛샤카지가 있다. 사찰의 연기설화에 따르면 홍법대사가 어릴 적 불도에 뜻을 두고 산 정상의 바위에서 서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몸을 던졌고, 천녀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 구해주며 수기를 내린 성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불상들은 홍법대사가 몸을 던졌다고 하는 산 정상에 있는 암자에 봉안돼 있던 불상들이다. 본존인 석가여래상, 부동명왕상, 홍법대사상 등 3구가 산 정상에서 기슭의 슛샤카지로 이운돼 공개됐다. 특히 본존불인 석가여래상은 주지스님조차 단 한 번도 친견한 적이 없는 비불(祕佛)이다. 슛샤카지의 주지 오카다 유키에 스님은 “오랫동안 암자 본당의 감실 안에 봉안돼있었다. 나는 물론이고, 선대에서도 감실을 열었다는 기록이 없다”고 전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본존 석가여래상은 높이 약 70cm의 목조에 개금이 돼 있으며 통견의를 입고 있는 좌상이다. 감실의 형태 산내 암자의 중창 시기에서 대략 에도시대 초기인 17세기의 작품으로 추정하는 입장도 있으나, 후대에 개금됐을 가능성과 함께 공개된 부동명왕상이 9세기경의 작품인 것에서 동시대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껏 한 번도 학술적인 조사가 이루어 진적 없기에 상세한 내력은 아직까지 불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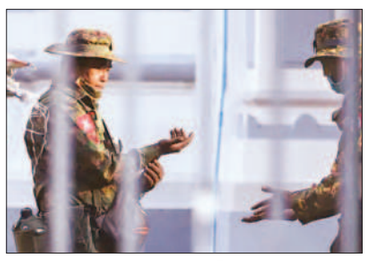
흥법대사상의 경우 불상의 좌대에 남은 묵서에서 사찰이 산 정상에서 기슭으로 옮겨져 새롭게 중건된 것에 맞춰 조성됐다는 기록이 있어 16세기 후반의 작품이 명확해 사찰의 역사를 밝히는 자료로써도 중요하다. 보통 중장년의 모습으로 조성되는 흥법대사상들과는 달리 젊은 모습의 흥법대사상 역시 본존불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슛샤카지 측은 5월 말까지 불상들을 공개하고, 이후 가을에 한 차례 더 공개한 후에 다음 공개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공개소식이 전해지면서 순례자들은 물론 현지주민들 역시 불상을 친견하기 위해 몰리고 있다고 현지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공개는 사찰의 창건주이자 88개소 순례길의 시조인 홍법대사의 탄생 125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오카다 스님은 “이번 공개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교문화와 사찰에 대한 흥미를 가지시길 바란다”며 공개의 의의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 군정, ‘띤잔’ 맞아 3천 명 사면

불교 달력 사용 4월 신년 축제
“국민에 기쁨 주기 위한 사면”


사진출처=eurasiareview

미얀마 군사 정권이 신년 축제인 ‘띤잔’을 맞아 3000여 재소자를 사면했다.

4월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군정은 “외국인 98명을 포함해 3천 113명을 이날 석방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불교 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4월 새해를 맞는다. 미얀마 사람들은 띤잔 기간 보시를 하거나 물을 뿌려 액운을 쫓는다는 의미의 ‘물 축제’를 즐긴다.

군정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의 새해를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면 대상에 반정부 시위대 등 정치범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정은 지난해 띤잔에도 1천 600여명의 재소자를 석방했으나 정치범은 제외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뒤 정권을 빼앗았다. 이후 군정은 NLD 측과 민주화 운동가 등 반대 진영 인사들을 모조리 구금했다. 수치 고문은 선거 조작 및 부패 등 각종 혐의로 총 33년 형을 받았다.

민간에 대한 탄압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정부군이 사가잉 지역의 깐발루 타운십 (구)빠지지 마을의 NUG 사무소 개소식장을 공습해 민간인을 포함해 약 17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군정은 쿠데타 이후 2년 간 2만1천348명을 체포했고, 1만7천460명을 구금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세계 불교 지도자들, 현대 사회 해법 모색

인도, 4월 20~21일 제1회 세계불교정상회의 개최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인도에 모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힌두스탄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월 20~21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 사진) 인도 총리는 국제불교연맹(IBC)과 함께 인도 뉴델리에서 제1회 세계불교정상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첫 회의가 무산된 지 3년 만이다.

캄보디아, 일본, 러시아, 한국, 태국, 베트남 등 약 30개국에서 온 170여 불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철학에서 응용까지 현대 위기에 대한 응답’을 주제로 열렸다.

기조 연설자로는 티베트 불교 겔룩파의 승려이자 콜롬비아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트루만(Robert Thurman)이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현대 사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환경 위기와 지속가능성 △나란다 불교 전통 보존 △인도 불교 문화 유산의 보존과 연구 등을 주제로 각국 불교 지도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이후 불교 지도자들은 인도 내 여러 불교 유적지를 방문했다.

키샨 레디 인도 문화부 장관은 “여러 나라의 저명한 불교 승려와 학자, 대사와 외교관들이 모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며 “우리 불교 역사와 유산을 더 넓은 세계에 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비전을 갖고 더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 정부는 지난달에도 상하이협력기구의 후원을 받아 불교 지도자 모임을 주최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후 인도가 전 세계 불교 교류를 위한 글로벌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려대 불자교우회

회 장 홍승기

교우회 동문 일동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00호
고려대 불자교우회 0502-129-2000

박물관 뜰에서 만나는 미륵 괘불

'부처의 뜰–청양 장곡사 괘불전'
국립중앙박물관 4월 19일~10월 9일

2023부처님오신날 맞아 18회 괘불전
높이 8m, 너비 5m 넘는 거대 화폭
본존불 미륵불 괘불 현존 단 2점 뿐
화폭 둘레 장식에 범자(梵字) 주목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202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괘불전 '부처의 뜰-청양 장곡사 괘불' 을 개최한다.

'긴 계곡' 이라는 뜻을 가진 장곡사는 그 이름과 같이 칠갑산의 깊은 계곡 안에 위치하고 있다.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조성된 국보 '철조약사여래좌상과 석조대좌' 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국보 '청양 장곡사 괘불' 은 조선 1673년(현종 14) 충청남도 청양 장곡사에서 승려와 신도 등 83명의 시주와 후원으로 조성됐다. 삼베 17폭을 옆으로 이어 높이 8m, 너비 5m가 넘는 거대한 화폭을 만들었으며, 철학 등 5명의 승려 장인이 함께 그렸다. 화면의 중앙에는 거대한 본존불이 화려한 보관을 쓰고 연꽃 가지를 들고 서 있으며, 본존불 좌우로 불 · 보살 · 나한 · 천왕 등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장곡사 괘불은 화면에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화폭에 그려진 총 39구의 불 · 보살 · 권속들 옆에는 모두 붉은색의 네모칸을 마련하여 이름을 적었다. 화면에 나타난 도상으로는 알기 어려운 각각의 이름을 적었다. 화면에 나타나는 도상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각각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중앙의 본존불 옆에는 '미륵존불' 이라는 명칭이 적혀있다. 현재 기록으로 본존불이 미륵불임을 알 수 있는 괘불은 장곡사 괘불과 '부여 무량사 괘불(1627)' 2점뿐으로, 미륵불 괘불은 흔히 볼 수 없는 괘불이다.


청양 장곡사 괘불.


장곡사 괘불 화기.


장곡사 괘불 진언.

화면 아래쪽에 위치한 '화기(畫記)' 에는 "강희 12년(1673) 5월 청양 동쪽 칠갑산 장곡사 대웅전 마당에서 열린 영산대회에 걸기 위한 괘불을 만들었다"고 적혀있다. 괘불을 조성한 시기와 사찰 이름 뿐 아니라 '영산대회' 라는 행사의 명칭, 그리고 '대웅전 마당' 이라는 구체적인 행사의 장소까지 적었다. 장곡사 괘불이 조성된 후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화폭의 둘레를 장식하고 있는 고대 인도의 문자인 범자(梵字) 또한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범자들은 불교의 신비로운 주문인 진언(眞言)으로, 불상이나 불화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종교적 신성성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염송하는 것이다. 장곡사 괘불은 화면 둘레에 범자를 장식한 조선시대 괘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8년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에서 청양 장곡사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출품된 국보 '금동약사여래좌상(고려 1346년)' 에 이어, 이번에는 국보 '청양 장곡사 괘불' 을 선보인다. 1673년 5월 어느 날, 깊은 계곡의 장곡사 뜰에 괘불이 걸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준 지 꼭 350년이 됐다. 이제 박물관에 펼쳐진 부처의 뜰에서 장곡사 괘불을 만난다.

괘불은 사찰에서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 야외에 모시는 대형 불화다. 높이가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화폭에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 의식에 사용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매년 사찰에 소장된 괘불을 특별히 공개하는데, 올해는 열여덟 번째 괘불전을 맞이하여 충청남도 청양 장곡사의 괘불을 소개한다.

2023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콘셉트 · 포스터 공개

'일상의 회복', '과거와 현재의 공존'
5월 11~15일 온 · 오프라인 통해 개최
오색빛닭 공동작업한 포스터도 공개



2023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일상의 회복' , '과거와 현재의 공존' 이라는 콘셉트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개최된다.

올해는 지난 시간 동안 물리적 · 사회적 거리로 인해 벌어진 일상의 간격을 회복하고자 '일상의 회복' ,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공존' 이라는 슬로건을 설정했다. 이에 2023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과거를 답습하지도, 현재에 매몰되지도 않는 일상 회복의 의미와 과정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노인만의 축제가 아닌 전 세대, 전 세계가 함께 노년의 삶을 영화로 이해해볼 수 있는 글로벌 세대 공감 영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3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포스터는 1730년 한양에서 스물 한 명의 노인들이 모여 궁궐 내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연회를 배경으로 한다. 이 연회는 스물 한 명의 노인 뿐 아니라 그림 속에 등장하는 모두가 흥겨워 보이는데, 이는 조선시대 기록하인 '이원기로회계첩' 속 한 장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세대가 흥겹게 어우러진 그림 속 이 장면은 오색빛닭이 생각하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모습과 무척 닮았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세대를 넘어, 시대의 이야기를 이어가듯이 약 300년의 세월을 넘어온 조선의 그림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공존' 이라는 주제로 풀어가고 있다.

이번 2023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포스터도 공개됐다. 포스터는 우리나라 전통회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국화콘텐츠메이커 오색빛닭과 함께했다. 우리나라의 옛 그림들을 재조명한 오색빛닭의 작품에는 '전통의 미래를 그리다' 라는 가치가 담겨 있으며, 예술적 감성과 섬세한 작업으로 전통을 현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오색빛닭은 한국 전통화를 기반으로 한 VR 콘텐츠, 온라인 체험전시, 미디어월, 상품 제작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중소기업 벤처부 '예비창업패키지' 우수사업체로 선정,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KCDF '전통문화청년 초기창업기업' 으로 선정됐으며, 이 외에도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박재완 기자

'천년의 빛을 깨우다' 展

통도사 성보박물관 4월 30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천년의 빛을 깨우다-불교미술을 이어가는 명장들' 展을 개최한다.

갤러리케이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우리 선조들의 예술혼을 되살려 새로운 불교미술의 찬란함을 더해가는 한국 명장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정수화를 비롯해 강록사, 박강용, 한견우, 김종민, 최상훈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주요 작품으로는 강록사 작가의 수월관음도, 정수화 작가의 지장보살도 등이 소개된다.

천년을 자랑하는 고려불교미술의 아름다움과 그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장인들의 불심으로 재현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갤러리케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화재의 의미를 선조들의 옛 유물에 의미부여를 했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곁에 그 문화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를 비롯한 수많은 명장들이 그 빛을 이어가고자 노력한다는 의미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우리의 예술혼이 되살아날 것 같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잘난 척 불교 사자성어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美 영화 스님이 강설한 부처님 유훈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유교경
영화 스님 강설
상욱 · 현안 · 김윤정 옮김
어의운하/1만5천원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 담은 경전
마지막까지 부처님은 '지계' 강조
"일심으로 수행하라" 당부 '감동'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 우리들에게 정언명령과 같은 유훈을 남겼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으로 압축되지만, 그보다 더 생생한 가르침을 담아낸 경전이 있다. 바로 〈불유교경〉이다. 〈불유교경〉은 한국 불자들에게는 조금은 낯선 경전이지만, 동아시아 전통의 선종에서는 〈사십이장경〉, 〈위산경책〉과 더불어 '불조삼경(佛祖三經)'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상징적인 경전이다. 총림에서는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경전이기도 했다.

〈불유교경〉은 이름 그대로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설한 법을 담은 것으로,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이자 제자들에게 대한 절절한 당부들이 담겼다. 삼장법사인 구마라집이 번역하였는데, 산스크리트 원본과 티베트본에는 없는 경이다. 미국 위앙종을 이끌고 있는 영화 스님은 〈불유교경〉을 지난 2008년에 미국의 베트남 사찰에서 영어로 강설했고, 이 책은 당시 강설한 내용 풀어놓은 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불유교경〉은 다른 경과 같이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세 가지 체계로 나눠진다. 〈서분〉에서는 부처님께서 모든 인연 있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시고, 사라쌍수에서 입멸 직전에 제자들에게 법의 본질을 설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정종분〉은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당부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계율'에 대한 강조가 주를 이룬다. 영화 스님은 자신의 강설에서 이 점에 주목한다.

"부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친 법은 무엇일까요? '신묘장구대다라니'나 신주의 왕인 '능엄주'와 같은 거창한 이름이 아닙니다. 밀교나 탄트라법도 아닙니다. 정토나 참선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계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수행하려면 우선 계율부터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은 '정종분'에서 많은 부분에 거쳐 계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그 공덕과 대응책의 부문을 설하고 있다. 또한 감각기관, 욕망, 게으름 등을 다루는 것이 계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임도 설하고 있다. 그만큼 계를 지키는 것이 수행자에게 가장 근본임을 드러낸다. 또한 과식, 게으름, 졸음, 분노 등을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한다. 이 부분에서는 이 경이 출가자뿐 아니라, 재가자에게도 당부하는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가자에게 당부하는 내용 중에는 사고팔거나, 무역하거나, 건물을 모으거나, 노비를 부리거나, 짐승을 키우거나, 재물을 모으는 것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관상, 길흉 등 역수산계를 하지 말라고 하고, 주술을 부리거나 높은 가문의 사람과 연줄을 쌓고 너무 친하게 지내거나, 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부처님은 "출가자는 오직 몸가짐을 절제하고 때를 맞춰서 먹으며, 스스로 청정하게 살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 같은 절절한 당부는 〈불유교경〉의 처음부터 이어진다.

'유통분'은 결론의 성격이기에 다른 경에서는 비중이 비교적 작지만, 〈불유교경〉에서는 비중이 비교적 높다. 부처님의 마지막까지 간절히 권하는 당부는 "일심으로 수행하라"이다. 세상은 무상하니, 근심과 괴로움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신다.

영화 스님은 이 부분에서 "일심(一心)으로" 라는 말씀에 주목한다. 영화 스님은 대승은 정념(正念, Mindfulness)이 아닌 "일심을 강조한다"고 강설한다. 일심은 정념으로 이어지지만, 정념이 일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불유교경〉의 내용은 오로지 계정혜를 바탕으로 "수행 정진하라"는 부처님 말씀뿐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는 2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겐 절절한 화두로 다가온다.



부처님 성지서 전하는 따뜻한 편지



가자 부처님 나라로
지용 스님 지음
도반HC 펴냄/5천원

부처님오신날 맞아 발간된 포교책자
부처님 성지 관련된 가르침들 담아내



부처님오신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일곱 걸음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선언하신 아기 부처님이 오신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팔 룸비니 성지에는 가기 어렵다면, 부처님 성지 관련 책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사장 주혜)는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자 부처님 나라로〉로 포교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 〈가자 부처님 나라로〉는 육군 상무대 무각사 주지 지용 스님〈사진〉이 집필했다. 책은 룸비니와 카필라부터 △전정각산(前正覺山) △보드가야 △녹야원 △우루벨라 마을 △영취산 △기원정사 △상카시아 △바이샬리 △날란다 대학터 △쿠시나가르 등 11곳의 부처님 성지에 대한 소개와 관련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특히 법우에게 이야기하듯 편지글 형식으로 유려하고 잔잔히 풀어내 쉽게 다가온다.

지용 스님은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이 힘들었다. 어려운 시기를 겪어낸 뒤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바로 불자들과 함께하는 인도성지순례였다"면서 "부처님 성지는 우리 불자들에게 늘 새로운 감동과 지침을 준다. 내가 느낀 그 감동을 많은 불자들이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글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들어 법륜 스님이 1250명의 순례단을 이끌고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셨고,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100여명의 사부대중과 함께 43일 도보 순례를 하셨다"며 "종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불자들이 신심(信心)과 원력(願力)으로 성지순례를 하는 모습에 환희심이 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반HC는 2023년도 달력 주문사찰과 100권 이상 법보시하는 곳에는 특별가격으로 이번 책을 보급할 예정이다. 도반HC 사장 주혜 스님은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것만큼 좋은 수행도 없다"며 "〈가자 부처님 나라로〉를 보며 공부하고 또 직접 순례를 해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책 속의 밑줄 긋기

(사르나트) 어느 누가 불교를 조용한 은둔의 종교라고 했던가요. 녹야원에서 만나는 불교는 더없이 역동적이고 힘찬 모습입니다. 지금도 녹야원 한 가운데 우뚝 솟은 다메크 탑을 바라보고 있으면 부처님의 우렁찬 전도선언이 들리는 듯합니다. - 48~49쪽

(영취산) 영취산에 올라 바라보면 탁 트인 드넓은 평야가 펼쳐집니다. 이곳이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대륙에서 가장 번성한 대도시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숲길이고 광야이지만 아는 사람에겐 수많은 사연들이 영화처럼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발 한발 오를 때마다 경전에서 읽었던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언덕길입니다. 그 언덕길 끝자락에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던 자리, '여래향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끄러미 손님을 맞이하시던 여래의 표정에는 아마도 파도치던 세상사가 닿지 못하는 미소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 70쪽

(바이샬리) 〈열반경〉을 보면 바이샬리를 떠나시던 길에 언덕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시고는 "이 아름다운 도시를 보는 것도 내 생에 마지막이구나."라며 짙은 감성의 말씀도 남기십니다. 강을 건너 떠나시는 노 성인과의 이별이 안타까워 강기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발우를 띄워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흔들림 없는 스승이지만 이런 다정한 손길도 있는 분이기에 자취만 남은 사리탑에서 그리워하는 순례자들도 잊지 않고 살펴주시리라 믿어봅니다. – 100쪽

(쿠시나가르) 아직 영글지 않은 우리들이기에 진심 어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해도 때론 헤매고 때론 주저앉기도 할 겁니다. 법우님!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들어 아련한 성지들을 떠올립니다. 그 길 위에서 걷고 또 설법하시던 부처님도 함께 그려봅니다. 청정한 믿음을 가진 불자가 절박함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 순례는 그렇게 일어날 힘을 주고 걸어갈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든 부처님 가신 길을 따라 함께 걷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래에 대한 최고의 예배일 것이고, 우리가 정성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 120~121쪽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9~4/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앙굿따라니까야(1)숫자별로모은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	부처님의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7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3	무비스님의천수경(개정판)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8	불교적심신의학과생명윤리	김성철	오타쿠
4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9	인생수업(잘물든단풍은봄꽃보다아름답다)	법륜/유근택 그림	휴
5	조선시대수륙재와감로탱:불교의례의시대도상	강영철	꽃피는아몬드나무	10	예수재의범	해사 편찬	운주사

책세상

'감로탱'에 담긴 중생구제 실천적 세계관



조선시대 수륙재와 감로탱 – 불교의례의 시대도상
강영철 지음
꽃피는 아몬드나무 / 4만8천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선시대 수륙재와 감로탱〉은 조선시대 불교의례의 꽃인 불교미술을 의례사적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접근한 보기 드문 학술서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학술서임에도 대중적인 인문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수륙재 현장을 십여 년 동안 실제 참여한 불교미술사학자인 강영철 저자는 수륙재의 대중성에 주목했다. 대승사상에 입각한 조선시대 수륙재 의식집의 다양한 판본들에서 재의 성격과 개념들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의식절차와 동선들을 실질적으로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불교문화와의 접목을 위해 깊고 다양한 여러 방식의 접근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대재였던 수륙재의 의식용 탱화라 할 수 있는 감로탱의 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참여와 관찰' 관점을 통해 새로운 측면의 연구대상으로 이를 풀어냈다.

〈조선시대 수륙재와 감로탱〉은 조선시대 불교문화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번성했던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와 허응당(虛應堂) 보우(普雨, 1509~1565)의 중흥불사 시기와 이후 그 영향을 받은 시기를 중심으로 사찰에서 행해졌던 왕실 '영혼식(迎魂式)'과 '재(齋) 형식의 제사', 명절인 불교 사명일(四名日; 설, 단오, 추석, 백중)의 '수륙재(水陸齋)'를 각종 자료와 수륙재 의식집의 판본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다뤘다. 이 과정에서 수륙재의 의례화(議禮畵)인 감로탱이 어떻게 등장했는지와 그 전개과정을 조선후기까지 확대해 살펴보면서 감로탱에 그려진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대 도상들도 분석해 풀어냈다.

조선시대 사찰에서 행해진 왕실의 '재(齋) 형식의 제사'는 조선왕조실록 등에 나타나는 제한된 자료가 대부분이다. 〈조선시대 수륙재와 감로탱〉에서 다루고 있는 허응당 보우의 〈중종인종양대왕급선왕선후영혼식(中宗仁宗兩大王及先王先后迎魂式)〉은 수륙재의 독립된 하단 의례문으로 왕실의 기신재(忌晨齋)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실제 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감로탱〉(18세기)의 '초란이'(좌) '소리꾼'(우).

저자는 당시 서당의 학동들이 읽던 〈당음(唐音)〉의 싯구인 '馬上逢寒食途中(마상봉한식도중)'이라 쓰인 부채를 들고 사설 풀고 있는 장면을 분석했다. 저자는 이것을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흥부가 판소리 도상으로 보고 있다.

'재(齋) 형식의 제사'를 위해 왕실에서는 구체적인 의식절차를 공유하며 향사香使)를 파견하고 공양물을 올렸는데 이때에 당시 재에서 통용되던 영가를 위한 밥인 '영반(靈飯)' 대신에 임금의 밥인 '수라(水刺)'와 제주도의 겨울 진상품인 '귤'까지 올렸던 기록이 전하는 등 조선시대 왕실 천도재 연구의 외연확대에 크게 반영될 연구 성과가 담겨있 다.

또한 당대의 수륙재와 우란분재[백중]와의 영향관계를 교학과 신앙에 의거해 체계적으로 분석했으며 고승들의 의식집 편찬을 비롯해 어산의 이력까지 추적해 이 시기의 기본적인 어산사(魚山史)를 처음으로 복원해냈다.

조선시대 고승들 가운데는 특이하게도 수륙재 의식집을 편찬하고 어산 이력을 가진 이들이 등장한다. 이 책은 근대의 어산(魚山) 계보 연구범주 경향에 벗어나 16세기와 18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시대 초기 어산사(魚山史)에 대해 처음으로 다룬 연구 성과물이다. 조선시대 양대 계보인 '청허계(淸虛系)'와 '부휴계(浮休系)' 중 청허계의 서산(西山) 문중이 이를 이끈 것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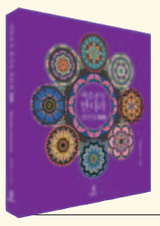
〈조선시대 수륙재와 감로탱〉의 또 다른 특징은 감로탱에 반영된 다양한 시대 도상을 새롭게 밝힌 것에 있다. 수륙재와 우란분재[백중]의 영향관계를 다루면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감로탱〉(18세기)의 면연귀왕 도상이 불교의 그릇인 발우가 아닌 민간의 '대나무 소쿠리'를 왜 들고 있는지 밝혀내고 있을 뿐만아니라 〈리움 소장 감로탱〉(18세기)에서는 상모 벙거지에 탈을 쓴 초란이가 세시(歲時)에 '고사반(告祀盤)'을 행하고 있는 장면을 풀어냈고, 〈용주사 감로탱〉(1790)에서는 흰쌀이 소복한 '고사반'을 마치 오랜 풍속화를 보는 것처럼 풀어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감로탱〉(18세기)에서는 방정맞은 '초란이'를 비롯해 갓에 장구를 치는 '소리꾼'이 당시 서당의 학동들이 읽던 〈당음(唐音)〉의 싯구인 '馬上逢寒食途中(마상봉한식도중)'이라 쓰인 부채를 들고 사설 풀고 있는 장면을 분석했는데, 이것을 저자는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흥부가 판소리 도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도상 풀이는 저자가 감로탱을 보는 관점과 관찰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한줄 소개

조선시대 수륙재를 중심으로 한 각종 문헌자료들과 이와 연계된 감로탱의 체계적인 도상 분석을 통해 대승사상의 의례화(議禮化)와 중생구제의 실천적 세계관을조명하고 불교미술사와 불교민속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힌 연구서.

100가지 만다라 색칠하니 '마음공부' 저절로

다양한 감정 나오는 만다라에 '나' 맡기면
여유로움 함께 조화로움도 배울 수 있어



마음공부 만다라 컬러링 100
용정운 글 · 그림
불광출판사 펴냄/ 1만8천원

만다라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중심', '근원', '원'을 뜻한다. 만다라는 옛날부터 성스러움, 완전함, 일체, 우주를 상징하거나 삶의 지속성, 순환성을 의미한다고 여겨져 왔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종교적 의미를 담아 수행의 한 방법으로 만다라 그리기를 활용했다.

현재의 만다라 그리기에는 종교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이 바탕이 된 심리치유의 한 방법으로 활



용되고 있다. 매일 원을 그렸던 융은 그 원이 자신의 무의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스스로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만다라 그리기'를 심리치료에 적용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미술 치료 기법으로써의 만다라 그리기다.

〈마음공부 만다라 컬러링 100〉은 100가지 다양한 만다라를 채색하며 '만다라 미술 치료'의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컬러링'이라는 체험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책이다. 저자가 그려낸 만다라긴 하지만, 나만의 색으로 채색해 나가다 보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불안, 화, 슬픔, 후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어느새 흘러나오게 된다.

사랑, 기쁨, 감사 같은 주위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 긍정적인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흘러나오는 만다라에 나를 맡기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여유로움과 함께 할 수 있는 조화로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만다라 컬러링이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만 집중돼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컬러링' 활동을 즐기고, 이를 취미로 삼아보고자 하는 사람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도안이 골고루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100가지 도안 가운데에는 섬세하거나 화려한 도안도 있지만 간단하고 단순한 도안도 있다. 그래서 컬러링을 여러 번 해본 숙련자는 물론이고, 컬러링이 익숙하지 않다 해도 컬러링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특정한 문양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만다라에는 '대칭성'과 '균형미'가 있다. 이러한 만다라 자체의 아름다움은 컬러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채색하든 상관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게 해준다.

저자가 매일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그려내었기 때문에 도안 가운데에는 우리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들도 숨어 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해나 꽃, 나뭇잎 같은 자연물이나 선풍기, 피자, 콩 등 사물을 소재로 한 만다라 도안을 보면서 숨어 있는 모티프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이를 통해 만다라 컬러링이 결코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활동이 아님을, 만다라 컬러링을 하는 시간은 그저 즐기면 되는 시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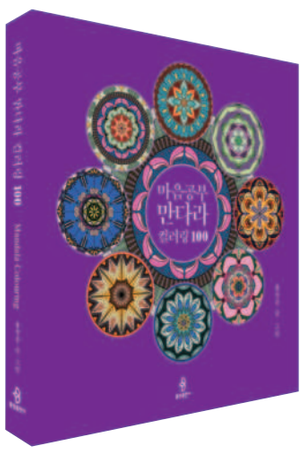
용정운 작가는 "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그리는 건 심리적인 안정감과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면서 "만다라 그리기는 작가에게 있어 최고의 명상법이자 생활이고, 휴식의 시간이었다. 깨어남의 기적을 선물한 만다라는 선물이고 사랑이다"고 자신의 책을 소개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100가지 만다라를 색칠하면서 비워내고 채우는 내 마음

명상 카툰 작가이자 명상 수행자인 저자가 마음공부를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그려낸 100가지 만다라 도안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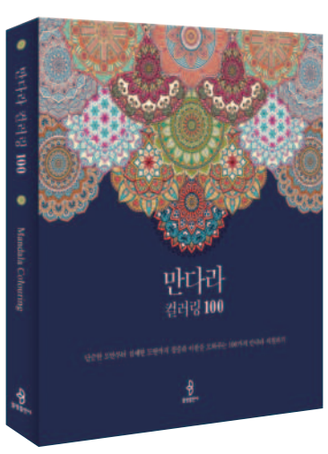


마음공부 만다라 컬러링 100
용정운 글·그림
144쪽 | 양장 | 올컬러

'지금'에 집중하고 휴식을 도와주는 100가지 만다라 색칠하기

만다라 컬러링 분야 대표 스테디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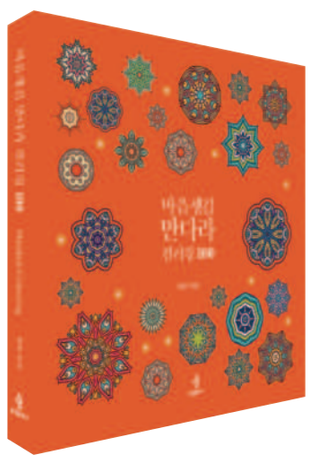
100가지 다양한 만다라를 색칠하며 누리는 집중과 이완의 시간



만다라 컬러링 100
편집부 엮음
128쪽 | 양장

컬러링의 즐거움과 함께, 마음챙김이 주는 평온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컬러링북

전통적인 만다라와 만다라를 응용한 도안, 그리고 문살과 단청 등을 소재로 한 한국 전통 문양까지 다양한 난이도, 다양한 형태의 100가지 도안 수록 !



마음챙김 만다라 컬러링 100
혜장 엮음
132쪽 | 양장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15

▶한줄요약
손타라 때문에 출가를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난타는 붓다의 바람을 저버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출가하겠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는 손타라에게 돌아갈 궁리만 하는데….



억지로 출가를 약속한 난타

뉴델리에서 며칠 ②

2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붓다는 무엇 때문인지 발우를 받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는 몸을 돌리면서 제자에게도 발우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당신은 누구에게 그 발우를 받으셨습니까?

눈치를 못 챈 난타가 발우를 제자에게 주려고 하자 제자가 정색하고 물었다.

난타는 멍청히 제자를 쳐다보았다. 생각 같아서는 이 사람아 하고 손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분명 제자는 그 옛날의 코흘리개 동무가 아니었다. 어엿한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그에게서 난타는 감히 범치 못할 위엄을 느끼며 방금 발우를 붓다에게 받았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붓다께 드리십시오.

난타가 앞을 바라보니 이미 붓다는 저만큼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감히 불러 세우지는 못하고 하는 수 없이 그는 발우를 들고 붓다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멀리서 바람이 쉼 없이 불어왔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채 식지 않은 지열이 그들의 옷자락을 휘감았다.

이윽고 정사에 이른 붓다가 손발을 씻은 뒤에 자리에 나아가 앉았다.

그제야 난타가 발우를 가지고 들어가 붓다에게 바쳤다.

붓다가 말없이 발우를 받아서는 속의 음식을 들고나서야 난타를 찾았다.

-난타야 이리 오너라.

-붓다시여.

-내가 여기 밥을 남겼느니라. 내가 남긴 이 밥을 네가 먹겠느냐?

-먹겠습니다.

난타가 대답했다.

붓다가 그에게 발우를 주었다.

난타는 그것을 먹기 시작했다.

-난타야, 너는 출가하지 않겠느냐?

난타가 다 먹고 나자 붓다가 물었다.

난타는 손타라가 생각났지만, 붓다의 바람을 어길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출가하겠습니다.

-사리풋드라야.

붓다가 제자 중에서 연장자인 사리풋드라를 찾았다.

사리풋드라가 붓다 앞으로 다가왔다.

-찾으셨습니까?

-너는 난타의 수염과 머리를 깎아 주어라.

-그러하겠습니다.

사리풋드라가 대답했다.

난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방금 출가하겠다고는 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머리와 수염을 깎게 될 줄은 몰랐다. 아니 솔직히 붓다의 위엄과 존경심 때문에 그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을 뿐이지 막상 출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리풋드라가 이발사를 데리고 다가왔다.

-저 사람의 수염과 머리를 깎으시오.

사리풋드라가 이발사에게 말하고 가버리고 나자 난타는 수각 쪽에서 칼을 가는 이발사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난타의 말에 이발사가 영문을 모르고 눈을 크게 떴다.

-내 마음을 말이오?

-제가 어찌 그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만두시오. 나는 오래지 않아 카필라의 전륜왕이 될 터인데 당신이 함부로 내 머리를 깎게 되면 장차 나는 당신의 팔을 잘라 버릴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이발사는 겁에 질려 머릴 깎는 기구를 주섬주섬 싸기 시작했다.

사리풋드라가 돌아와 보니 이발사가 떠나려고 하고 있다.

-왜 그러는가?

사리풋드라가 그를 향해 물었다.

이발사가 머리를 홰홰 내저었다.

-저는 저분의 머리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린가?

난타가 슬며시 시선을 돌렸다.

그런 난타를 흘끔거리며 이발사가 고개를 내저었다.

-저분은 머리를 깎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카필라의 전륜왕이 될 것인데 만약 자기 머리를 깎는다면 내 팔을 잘라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사리풋드라가 난타를 쏘아보았다.

-그게 사실이오?

난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길로 사리풋드라는 붓다에게로 갔다.

난타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 붓다가 밖으로 나와 난타에게로 다가갔다.

-난타야, 나에게 거짓말을 했더냐?

붓다가 확인하듯 물었다.

위엄에 짓눌린 난타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출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리 오너라.

난타가 가까이 다가가자 붓다는 스스로 병에 든 물을 가져와 그의 머리에 부어 주었다. 붓다는 알고 있었다. 난타의 마음을. 그렇게 난타의 마음을 시험해 본 것이었다. 삭발은 수행적 삶을 시작하는 의식이다. 세속의 삶을 버렸다는 징표요 일체중생을 구하겠다는 수행자의 서원이다. 그러므로 이발사가 그 의식을 대신할 수 없다. 정인(淨人)이 그 의식을 맡는다.

출가를 생각했던 적도 있긴 했었지만, 막상 정인이 머리를 깎겠다고 나서자 난타는 손타라의 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았다. 지금쯤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꼴인가.

이럴 수는 없다. 붓다도 무심하시지. 출가시키려면 작정할 시간을 주셔야지.

그런 생각이 들자 하기야 싶었다. 그동안에 주위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붓다의 제자가 되어 이미 아라한의 경지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자 한 사람에게 빠져서는 발심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만큼 시간을 주었으면 되었지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이렇게 출가해 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출가하겠다고 했으니 머리를 깎겠지만 날만 저물면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될 것 아닌가.

하지만 이미 붓다는 난타의 그런 마음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난타가 가는 길에다 큰 구덩이를 파 놓았다. 구덩이 주위는 수풀이 우거져서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없었다. 구덩이를 건너가려고 했지만 얼마나 깊고 크게 파놓았는지 도저히 날이 밝지 않고는 그곳을 건너갈 수가 없었다.

난타는 구덩이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손타라만 생각했다. 날이 밝는 대로 다른 길을 잡아 떠날 생각이었다.

향실에서 선정에 든 붓다는 그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는 날이 밝기 전에 사리풋드라를 찾았다. 사리풋드라가 가까이 다가오자 붓다는 그에게 일렀다.

-난타에게 가서 내가 지사인(知事人)을 삼겠다고 일러주어라.

사리풋드라가 난타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손타라에게 돌아가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에게 일렀다.

-난타여, 붓다께서 그대를 지사인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인이 무엇이오?

난타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그대는 여러 가지 일을 보살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오?

-난타여, 지사란 비구들이 탁발을 나가면 도량에 물을 뿌려 말끔히 쓸어야 합니다. 소가 변을 보면 그것을 깨끗이 치워야 하고, 정사를 정신 차려 지켜서 실수가 없게 해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평장사(平章事)가 대중 스님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대는 향과 꽃이 있으면 마땅히 대중들에게 주어야 하며, 밤이 되면 문을 닫고 새벽이 되면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대소변을 하는 곳을 언제나 깨끗이 씻고 닦아 내야 하며, 정사 안에 파괴된 곳이 있으면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난타는 기가 막혔지만, 고개를 떨구었다. 손타라가 계속 눈에 밟혔지만, 붓다에게 출가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더는 어린아이처럼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떼를 쓸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날이 밝아 비구들이 가사를 입고 발우를 들고 마을로 내려갔다.

난타는 정사가 완전히 비자 잘됐다 싶었다. 마당이나 쓸고 집으로 가 버리자는 속셈이었다.

-먼저 낙엽 쌓인 도량부터 쓸어야겠다.

그는 비질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깨끗이 쓴 곳을 되돌아보면 낙엽이 쌓이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되돌아보면 낙엽이 쌓여 있었다.

그대로 나가다간 도저히 끝이 날 것 같지 않았다.

그는 그만 문이나 닫아 놓고 가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은 떠나가지만, 도둑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는 차례로 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음 문을 닫으려고 하면 먼저 닫은 문이 계속해서 열렸다. 닫고 또 닫고 닫고 또 닫고 그러다 그는 문을 닫기조차 포기하고 말았다.

문이 열리는 것 같더니 기다리다 지친 표정을 하고 송 서화가가 들어왔다.

-아직 멀었지요?

내가 노트에서 눈을 떼며 웃었다.

-어휴 눈이 빠질 것 같네요. 이제 시작인데.

-양이 꽤 되는 모양입니다?

-양보다도 읽기가 힘들어서…

그가 잠시 머뭇대다가 나갔다.

다시 노트에 시선을 주다가 일어나 창을 좀 열었다. 낯선 풍경이 시야를 사로잡았다. 문득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글을 쓴 이석원이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노트에 눈을 붙박았다.

-그래, 그냥 가 버리자. 도둑이 들어 정사를 모두 부수어 버린다 해도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장차 왕이 될 몸이다. 그때 가서 여기보다 백천 배도 더 되는 좋은 정사를 지으면 될 것 아닌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정사를 나왔다. 곧장 마을로 내려가다가는 붓다와 마주칠 것이 뻔했으므로 그는 지름길을 택해 걸었다.

그러나 붓다는 이미 그의 생각을 간파하고는 그가 걷고 있는 작은 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한참을 걷다가 난타가 고개를 들어보니 붓다가 저만큼 올라오고 있다.

난타는 큰일 났다는 생각에 길 곁에 가지가 드리워서 그늘이 진 나무가 있었으므로 그리로 달려가 그 아래 몸을 숨겼다.

나무 가까이 다가온 붓다가 걸음을 멈추고 난타를 불렀다.

-난타야, 이리 나오너라.

난타는 하는 수 없이 나무 밑을 나와 붓다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따라오너라.

붓다는 그렇게 말하고 앞서 걸었다. 난타는 하는 수 없이 붓다의 뒤를 따랐다.

붓다는 앞서 걸으면서 그에게 물었다.

-아직도 결심하지 못했더란 말이냐?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그러합니다.〈계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3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 정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장 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연수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1일차 (9월 6일,수)	2일차 (9월 7일, 목)	3일차 (9월 8일, 금)
09:00~12:00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시연까지'	마음불사 도량불사 스님들의 고민 톡!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한마음과학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수행 법회 사찰 운영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실습
▶ 마음과학에 대한 특강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3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농협, 355-0061-8192-63) 한나무인성교육연구회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⑧ 관욕 (上)



▶한줄요약
한국불교의 경우 부처님오신날의 탄생불이 아닌 일상적 관욕은 의례 속에서 상징적으로 전승돼 왔다.

'찬탄·경배' 담아 탄생불 씻기는 정화의식

의례에서 '물'이 지닌 상징성

종교의례에서 물이 지닌 상징성은 매우 크다.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걸 깨끗이 씻어주는 물의 정화력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신성성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물은 초월적 존재에게 올리는 공물(供物)인 동시에 부정(不淨)을 씻는 필수요소로 여겨졌다.

의례에 쓰는 물을 맑고 깨끗하다는 뜻에서 '청수·정수'라 하고, 이른 새벽 샘에서 길었다는 뜻에서 정화수(井華水)라고도 부른다. '물 한 그릇 떠 놓고 식 올린다'는 말이 있듯이, 신랑·신부가 서로의 머리를 틀어주면서 치렀던 가난한 이들이 전통 혼례에서도 빼놓지 않는 것은 한 그릇의 정화수였다. 비록 제대로 갖추어 치르지는 못해도 맑은 물로써 천지신명에게 신성한 혼인을 약속하는 것이다.

아울러 초월적 존재와 만나기 위해서는 공간의 삿된 기운을 없애고, 동참자들의 심신 또한 정결해야 한다. 따라서 의례 전에 목욕재계와 금기를 지켜 심신을 정화하는 한편, 의례공간의 사방에 물을 뿌려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게 된다. 이처럼 물은 세속의 오염을 소거함으로써 신성한 시공간으로 들어서게 해줌과 동시에, 신에게 바치는 신성하고 깨끗한 공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런가 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씻김의례'에 주목해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탄생과 같은 종교적 상징성을 지녀, 물의 정화력이 극대화된 경우라 하겠다. '씻김'이라는 과정이 중요한 통과의례의 구실을 하여 이전과 다른 지위·상태·자격을 얻어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침례교에서는 몸을 물속에 잠그는 침례(浸禮) 의식을 통해 이전의 죄를 모두 장사지내고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는 의미를 부여한다. 기독교에서도 이마에 물을 뿌려 교인으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세례(洗禮)가 일상화되어 있다. 침례·세례가 산 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면, 불교의 천도재와 무속의 씻김굿에서는 영혼을 대상으로 관념적인 씻김의례를 행한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물로써 대상을 정화하는 의례를 '관욕(灌浴)'이라 부른다. '관욕'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물을 부어 목욕시킨다'는 뜻을 지녔다. 천도재에서 영가의 업을 정화하는 의식에서부터, 부처님오신날 청수로 탄생불을 씻어주는 관불(灌佛)·욕불(浴佛)에 이르기까지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한국불교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의 관욕을 제외하면, 불상이나 산 자를 대상으로 한 관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실제 물을 뿌리는 행위의 관욕이 드물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관념적·상징적 관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발달했는데, 이 경우에도 하위(下位)의 망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상위(上位)의 관욕은 드문 편이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경우 실제적 관욕보다 관념적 관욕이 발달했고, 성(聖)의 존재보다 속(俗)의 존재, 산 자보다 망자를 대상으로 삼는 특징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탄생설화의 주요 모티프

부처님오신날에 탄생불을 씻어주듯이, 신성 존재를 향한 관욕은 '찬탄과 경배'로 행하는 정화의식이다. 고대인도의 브라만교에서는 신상(神像)을 물로 정갈히 하는 의례를 주기적으로 행하였다. 〈대보적경(大寶積經)〉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사위성(舍衛城) 파사닉 왕의 딸인 8세의 무구시(無垢施) 공주가, 2월 8일 비성(沸星)이 나타나는 날에 5백의 브라만과 함께 물항아리를 들고 성 밖으로 나가 천상(天像)을 씻겼다는 것이다. 그 뒤의 전개를 보면, 브라만들이 성 밖에 있던 비구들과 토론이 벌어지면서 공주와 브라만은 모두 비구들의 설법에 감화되어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한다.

불교서 수용·전승된 관욕
탄생불 대상으로한 출발점
점차 일상화된 욕불로 확대



부처님오신날의 탄생불 관욕 장면.



천상에서 아홉 용이 물을 뿜어 탄생불을 씻어주는 장면. 통도사 팔상도 중 '비람강생상' 부분도.

이러한 정화의식은 보편적 상징성을 지녀, 불교의 성립과 함께 불상(佛像)을 씻어주는 관욕 개념이 자연스레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한 시기는 1~2세기이니, 불멸(佛滅) 후 불상을 조성하기 전까지의 관욕은 실제 의식행위가 아니라 탄생설화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 부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아기가 태어나면 몸을 닦고 정결하게 보호하듯이 탄생불을 씻기는 것은 매우 적합한 정화의식이기 때문이다.

〈보요경(普曜經)〉에서는 "싯다르타가 탄생했을 때 제석과 범왕이 홀연히 내려와 갖가지 향수로 목욕시켰고 아홉 마리 용은 하늘에서 향수를 뿜어 목욕시켰다"고 하였고, 〈과거현재인과경〉에도 "난타 용왕과 우바난타 용왕이 공중에서 깨끗한 물을 뿜어 한 줄기는 따스하게 하고 한 줄기는 시원하게 하여 태자의 몸에 부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경전과 그림에는 룸비니동산에서 갓 태어난 아기 부처를 천상의 신과 용이 물을 뿌려 씻어주는 내용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러한 관욕은, 연꽃이 피어나고 꽃비가 내리며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부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찬탄하는 신이(神異) 현상의 주요한 모티프이기도 하다. 불교에서 수용·전승된 관욕은 탄생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출발점이었고, 점차 일상화된 욕불로 확대 전승된 셈이다.

〈욕불공덕경〉 등에는 욕불을 행하는 공덕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도 상세히 다루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불상을 목욕시킬 때 갖가지 재료를 갈아 향수를 만들고, 이때 쓰는 물은 맑게 걸러서 작은 벌레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였다. 목욕한 물은 자신의 정수리에 발라 길상수(吉祥水)로 삼고 나머지 물은 깨끗한 곳에 버려서 밟지 않게 하며, 모든 향을 태워서 주변이 향기롭게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욕불은 공덕이 큰 예불행위가 되어 남방불교는 물론, 초기 중국불교에서도 활발하게 행해졌다. 고대 중국의 기록인 〈삼국지오서유요전(三國志吳書劉繇傳)〉에 따르면, 욕불을 할 때면 많은 음식을 차려 이를 위한 자리가 십 리나 이어졌고, 구경꾼이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민간과 어우러진 축제로 정착하면서 석가탄신일을 곧 '욕불일'이라 부르게 되었다.

남방불교에서는 석가탄신일과 명절만이 아니라 일상적 욕불 또한 활성화되어 있다. 이를테면 미얀마 만달레이에 있는 마하무니 사원에는 매일 새벽이면 부처님의 '세안 의식'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든다. 스크린을 통해 세안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예불을 올리고, 의식이 끝나면 길게 줄을 서서 부처님의 얼굴을 닦은 물을 담아간다. 부처님의 가피가 내린 길상수로 여겨 아픈 곳에 바르고, 장사를 하는 이는 판매하는 물건에 뿌리기도 하는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탄생불 관욕'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수용된 이래 석가탄신일의 주요 의식으로 관욕을 행하였다. 일본 원흥사(元興寺)의 자료를 보면 538년 2월에 백제 성왕이 태자상(太子像)과 관욕기(灌浴器) 등을 보냈다는 기록이 전하고, 최치원이 지은 지증대사(智證大師) 비문에도 "대사는 잉태한 지 4백여 일이 지난 관불회(灌佛會)의 아침에 태어났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1525년에 간행된 〈용재총화〉에는 "12월 8일의 욕불 때면 다과와 떡 등을 다투어 시주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스님을 대접했다"고 기록하였다. 이처럼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일생과 관련된 재일에 관욕이 널리 행해졌고, 이를 욕불회·관불회 등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의 초파일 풍습은 연등(燃燈)에 초점을 두면서 관욕은 법요식 등에 행하여, 대중이 탄생불에 물을 끼얹으며 참여하는 풍습이 활성화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에 '한동안 단절되었다가 1980년대에 재등장했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도 욕불은 꾸준히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9년 황성신문에 '욕불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매일신보에서는 초파일인 1915년 5월 21일 자에 "매년 각 사찰에서 성대한 관불회가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금년에도 각처 사찰에서 전례를 따라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회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경성부의 초파일 준비상황을 소개한 1928년 매일신보 기사에서는 조선은행 앞, 동아일보사 앞 광장, 장충단의 세 곳에 연화대를 마련해 불상을 모시고 각각 하루 세 차례씩 장엄한 관불식을 거행한다고 적었다.

부처님오신날의 관욕은 '지천지지(指天指地)'의 탄생불을 모시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 부처가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사자후를 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화반(花盤)에 탄생불을 모시고 청정수를 떠서 불상의 머리에 붓는 의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불상을 대상으로 한 관욕은 '부처님오신날의 탄생불'이 짝을 이루며, 그 외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불상을 향한 실제적 관욕 외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륙재·예수재 등에서 상위의 존재인 부처님을 대상으로 한 관념적 관욕이 전승되고 있다. 이때의 관욕은 위패(位牌) 또는 위목(位目)을 모시고 행하는 가상의 씻김의례를 말한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경우 '부처님오신날의 탄생불'이 아닌 일상적 관욕은 의례 속에서 상징적으로 전승되어온 셈이다.

그런데 의식문에 상위·중위·하위의 관욕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의례에서는 하위의 존재만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에 대한 해석과 담론도 다양하다. 이에 다음 호에서는 수륙재 등의 천도재를 중심으로, 삼단(三壇)의 존재를 향한 관욕의 전승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❽ 검은 소와 무명–윤회의 실체 (2)



▶한줄요약
불교미술은 "불타는 아귀를 택할 것인가, 영롱한 여의주를 택할 것인가" 또는 "미쳐 날뛰는 검은 소를 택할 것인가, 자유와 해탈의 일원상을 택할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

갈애의 검은 소인가, 깨달음의 흰 소인가

사납게 생긴 머리의 뿔로 방자하게 으르렁거리며/ 시내와 산골로 치닫고 달리니 길에서 점점 멀어만 가네/ 한 조각 검은 구름은 골짝 어귀에 비켜 떠있는데/ 치닫는 걸음마다 아름다운 싹을 침범할 줄 누군들 알리요.
–'미목(未牧)' 〈목우십송〉

'무엇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지난 연재 회차에서 붓다께서 통찰하신 '12연기' 에서 그 답을 찾았다. 12연기가 일어나는 과정 중 '유형(有形)의 삶(生)' 이 나타나기 직전, 그것의 유발 요인으로서의 '갈애' (또는 愛取)를 소개했다. 삶을 거머쥐려는 집착의 갈애. 그것은 막강하게 들러붙으려는 점착성 에너지가 이글이글 검붉게 타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화마(火魔)와도 같은 이 같은 모습은 불교미술에서 '아귀' 로 구현된다. 영가천도의 불화 〈감로탱〉 속 '불타는 아귀' 는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명을 바탕으로 한 갈애' 라는 것을 지난 연재에 소개한 바 있다.

무명갈애, '미쳐 날뛰는 소' 표현

사찰 전각의 외벽 벽화로 자주 그려지는 〈심우도(尋牛圖)〉에는 소와 동자가 등장한다. 동자가 소를 길들이는 과정이 열 단계로 그려져 있기에 〈십우도(十牛圖)〉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는 검은 색이고 미쳐 날뛰고 있다.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 검은 소는 '무명의 갈애(또는 욕망)' 을 상징한다. 글 첫머리에 인용한 '미목(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 보명 선사의 〈목우십송〉 중에서)' 의 내용을 보면, 치성한 욕망과 번뇌는 사방으로 튄다. 숨소리는 거칠고 가슴은 벌렁거린다. 불뚝 화를 냈다가도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기도 한다.

여기 저기 아무 곳으로나 치닫는 발걸음에 무고한 새싹들이 짓밟히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 자각하지 못하는 무지와 욕망의 반복으로 검은 소는 질주 일로이다. 악습은 어느덧 나의 성품으로 굳어져 버려, 그 성품에 하릴없이 휘둘린다. 점점 가속도가 붙는 업력은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자각이 없는 갈애는 참으로 위험천만이다. 심우도에 등장하는 검은 소는 지혜(또는 통찰지)가 없는 무명 상태의 중생을 가리킨다.


순천 송광사 승보전 〈심우도〉 벽화 중 '득우' 의 장면. 무명갈애의 날뜀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있는 동자.

보조국사 지눌이 저술한 〈수심결〉(마음을 닦는 방법)의 첫머리에는 중생의 현주소를 "탐 · 진 · 치의 뜨거운 불덩이"로 비유하고 있다. "탐욕과 성냄과 무명의 뜨거운 번뇌여/ 마치 활활 타는 집과 같거늘/ 그 속에 오래 머물러 참으며/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을 것인가!"

매 생(生), 매 순간, 매 찰나 마다 무명의 휘두름에 마냥 시달릴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종용한다.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부처가 되는 길 밖에는 없네… 이 육신은 변하는 거짓이라/ 태어남이 있으므로 죽음이 있거늘/ 참마음은 허공 같아서/ 끊기지도 변하지도 않는다"라며, 허망한 몸을 근거로 탐진치의 무명에 놀아나지 말고, 허공같이 드넓은 참마음을 찾으라고 말한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갈애'

살아서는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갈애, 죽어서는 '다시 삶을 거머쥐고자' 하는 갈애. 갈애의 성품을 좀 더 파헤쳐 보자.

"죽음의 순간 과거 업에 말미암은 무의식의 형태들이 표현에 떠오른다. 그 가운데 으뜸은 갈애(딴하taṇhā)의 힘이다. (중략) 갈애의 엄청난 힘에 의해 육체적 새 기반을 잡으려는 본능적 움켜쥠이 있어, 새로운 존재가 잉태되고 새 생명이 시작된다."
–구나라뜨라,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가–재생에 대한 아비담마적 해석〉 중에서

"움켜쥐며 달라붙는 그 힘은 가히 압도적이다!" 갈애는 대상이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들러붙으려는 에너지를 말한다.

삶에 대한 들러붙음. 즉, 집착을 생존본능이라 한다. 이러한 생존본능은 육신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의지의 힘이다.

"참으로 생명이란 갈애의 연속이다. 임종하는 사람은 그동안 축적된 살고자 하는 갈애 위에 죽는 순간의 강력한 갈애가 합해져, 다음 생을 끌어당긴다. 진정 살려는 (갈애의) 의지가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붓다에 의해, 삶을 살게 하고 또 다시 삶을 거머쥐는 윤회의 범인이 드러났다. 초기불전 니까야 속, 붓다의 생생한 말씀을 인용하면, (무명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12연기의 과정 속에서) "갈애를 연(緣)으로 하여 집착이 일어난다 → 집착을 연으로 하여 생성이 일어난다 → 생성을 연으로 하여 재생(再生)이 일어난다"라고 한다.

'알아차림'으로 끊어버리야

무명의 작용〔업력〕은 '알아차림' 할 때 비로소 멈춘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12연기〔(1)무명 → (2)행 → (3)식 → (4)명색 → (5)육처 → (6)촉(觸) → (7)수(受) → (8)애취(愛取) → (9)유(有) → (10)생(生) → (11)노(老) → (12) 사(死)〕는 저절로 계속 돌아간다. 〈유식〉의 표현을 빌자면, 말라식(我相,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무명)은 "멈추지 않는 폭우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른다." 그러면 갈애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불타는 아귀의 불을 끄고, 미쳐 날뛰는 소를 멈추는 길은 무엇인가? '알아차림(삿띠)' 밖에는 없다.

무명을 원인으로 하여 갈애가 생기고(無明因愛), 갈애를 원인으로 하여 업(業, 즉 오염된 업)이 생기고(愛因為業), 업(오염된 업)을 원인으로 하여 (갖가지로 오염된 번뇌 · 삼계의 색경에 속박된) 안식(眼)이 생긴다(業因為眼). 이식(耳) · 비식(鼻) · 설식(舌) · 신식(身) · 의식(意)도 또한 이와 같다.
– 〈잡아함경〉 제13권 제334경 '유인유연유박법경(有因有緣有縛法經)'

육근(六根, 안이비설신의)이 육경(六境, 색성향미촉법)을 만날 때(觸), 이미 삿띠를 밝히고 있으면, 촉으로 인한 느낌(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느낌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애취(갈애) → 유 → 생의 전개는 저절로 끊어진다.

알아차림을 놓치는 순간, 무명은 다시 자동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는 세세생생 닦아 놓은 업력의 길이 이미 탄탄히 나 있다. 방심하는 순간, 어느 덧 그것에 휘둘리고 있는 자신을 본다. 수행이란, 알아차림의 간격을 조금 조금씩 길게 늘려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덧 알아차림의 힘에 근력이 붙어 그것이 (무명이 저절로 돌아가듯) 저절로 돌아가는 경지에 이르면, 무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그러면, 무명업장을 타파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교미술의 표현으로 통해 살펴보자. 감로탱 속 불타는 아귀는 깨달음의 '여의주' 로 변한다. 심우도 속 검은 소는 하얀 소로 변하고, 급기야 텅 빈 '일원상' 만 남는다. 눈앞에 펼쳐진 불교미술은 "불타는 아귀를 택할 것인가, 영롱한 여의주를 택할 것인가" 또는 "미쳐 날뛰는 검은 소를 택할 것인가, 자유와 해탈의 일원상을 택할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심우도, 깨달음 10가지 과정 그려내

날뛰는 검은 소, '무명의 갈애' 상징

소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알아차림'

무명을 타파하면 검은 소는 흰 소로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이안의 Media In Buddha ⑭ '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



▶한줄요약
부산현대미술관은 경계를 넘어 새로운 전시, 새로운 상영으로서의 공간으로 관객을 초대하고 있다. 지난 4월 6일부터 열리고 있는 '2023 부산모카 시네미디어-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 기획전이 바로 그것이다.

미술관서 만난 영화, 생명 가치 일깨우다

절에 가서 동이 트기 한참 전 도량석에 함께 하거나, 저물녘 사물법고 의식에 자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울려 퍼지는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기원이 되는 아름답고 절절한 공감의 순간이 주는 파동을. 아침 예불을 하기 전에 천지 만물을 깨우고 도량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신새벽에 목탁을 치면서 사찰 주위를 도는 도량석이나, 사람 뿐 아니라 하늘에 사는 날짐승과 뭍에 사는 짐승까지 두루 아울러 모든 축생이 고통을 벗어나 기쁨을 누리기를 기원하며 목어와 운판, 법고와 범종을 울리는 정성은 어쩌다 보이는 퍼포먼스가 아니다. 보는 이가 있는 없는 절에서 날마다 하루를 열고 닫는 지극한 마음을 담아 나누는 일상적 의례다.

이토록 지극한 마음으로 뭇생명을 보살펴도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은 지금도 시시각각 병들고, 비명을 지르며, 그 안에 깃든 생명들의 무덤이 되어 가고 있다. 어쩌면 조류독감, 구제역, 메르스 등등 숱한 질병들이나 지난 3년 간 전 세계를 혹독하게 휩쓴 코로나19도 위기에 다다른 행성이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시기에 예술은 무엇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법고 타고식에 가듯 상영관에 가고 도량석을 돌 듯 전시관을 돌 수 있을까? 미술관에서 깨달음을 얻고, 영화를 보면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미술관은 영화관보다 어렵고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다. 아무래도 오랜 문화의 역사에서 미술관이란 두고두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이른바 '작품'들을 위한 공간이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밝은 애호가를 위한 예술 공간이라는 통념이 있으니까. 이에 비해 영화관은 처음부터 대중을 위한 '상품으로서의 오락거리' 동영상을 상영하는 상업 공간으로 익숙하기도 하고.

대개 사람들이 미술관을 가는 첫 경우로는 관광을 가서 꼭 들러야 하는 추천 명소여서 라거나 학교에서 단체관람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것이다. 그렇게 가게 된 미술관에서 교과서에서 보던 유명한 작가의 '진품' 또는 '원작'을 보게 되면 신기해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렇게 미술관에 익숙해지고 관심이 생기면 기획전이나 초청전을 따로 찾아보게도 되고. 또는 미술관 건물 자체가 근사해서 조용한 만남의 장소로나 결혼사진 야외 촬영장소로 찾는 사람들도 꽤 있고. 자주 드나들다 보면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별 행사에 참여하면서 현대의 미술관은 전시공간이 잘 갖춰진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일찍이 많은 현대 작가들은 새로운 미디어인 영상을 자신의 창작 매체로 '비디오 아트'를 미술관을 통해 선보여 왔고, 자신의 창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전시 공간 한쪽에서 소개하는 것도 흔한 경향이 돼 왔으니 미술관에서 동영상을 보는 것도 흔한 일이다.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가운데 현대적 미술의 상징처럼 우뚝하게 쌓여있는 모니터 기둥은 백남준의 '다다익선'이니, 현대미술관에서 영상을 보는 것도 익숙하다.



황윤 감독의 〈수라〉의 한 장면. 부산현대미술관 '2023 부산모카 시네미디어-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 기획전에서 만날 수 있다.

그래도 미술관 자체가 영화를 위한 공간이 되는 일은 좀처럼 없는 일이었다. '영화는 영화관에서, 작품 감상은 미술관에서'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영화관에서 우리는 어떤 영화를 보게 되는 걸까?

미술관을 찾게 되는 까닭은 세상에 이토록 많은 창작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저마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상상하고, 구현해서 우리 앞에 펼쳐 보였구나, 새록새록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선에는 공감을, 저런 표현에는 충격을, 또 어떤 시도에는 자극을 받는 경험을 따라 걷다 서다하는 동안 차오르는 감동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업 영화관에서는 그런 감동을 찾기 어렵다. 스크린이 여남은 개씩 되는 큰 극장이래도 상영작은 거기서 거기, 죄다 블록버스터에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비상업적 영화는 드문드문 퐁당퐁당 찾아보기도 어렵게 흩어져 있다. 그나마 예술영화전용관이 있는 지역은 일삼아 찾아가기라도 하지, 동네방네 생겨나는 영화관은 거의 다 프랜차이즈 멀티플렉스 차지다.

그러니 색다른 영화를 찾는 관객들은 영화제를 찾는다. 영화제에서는 각 영화제 성격에 따라 저마다 특별하게 골라낸 '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 영화제라는 건 딱 정해진 기간 동안 폭풍처럼 영화를 쏟아 붓듯 상영하는 굵고 짧은 행사다보니 보고 싶은 영화를 다 보기도 어렵고, 그 시기에 짬을 낼 수 없으면 남의 잔치 장하더라는 풍문으로나 지나게 된다.

부산현대미술관, 경계 넘은 전시회
전시와 영화, 미디어가 상호연관돼
미술관서 영화 보며 생명사상 확인
영화적 도량석이자 미술적 법고의식

그런데 이번에 부산현대미술관은 이런 경계를 넘어 새로운 전시, 새로운 상영으로서의 공간으로 관객을 초대하고 있다. 낙동강 어귀, 강과 바다가 만나 새가 많이 살고 물이 맑은 섬이라는 을숙도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수많은 생물들이 깃들어 살아 숨 쉬는 생태섬으로, 자전거길이나 도보 여행길로 잘 알려진 철새들의 낙원이다.

이 생태섬 가운데 있는 부산현대미술관에서는 바로 이 낙동강에서부터 세계를 잇는 재세계화 프로젝트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 중이다. 지난 4월 6일부터 열리고 있는 '2023 부산모카 시네미디어-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 기획전이 바로 그 시작이다. 올해부터 한 해 걸러 한 번씩 정례적으로 열릴 비엔날레 개념의 '부산모카 시네미디어'는 주인공이 영화다. 다양한 영화 관련 기관과 행사가 있는 영화 도시 부산에서 미술관이 시각 매체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구분이 지어낸 프레임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전시로 미술관을 '생태친화적 영화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영화계와 함께 준비한 이 전시는 영화관과도 다르고 영화제와도 다른 미술관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소개하고 관객을 맞는다.

현대미술이 영화와 맺는 관계를 확장시키는 이번 시네미디어 프로그램은 영상설치작업과 영화 사이에 경계 없는 관람지대를 마련했다. 이 영상지대에서는 관람객들 저마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한 작품 앞에 오래오래 머물며 뜯어 볼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작품은 보고 또 보며 마음에 담을 수도 있고, 상영 시간이 정해진 작품은 때맞춰 찾아볼 수도 있다. 따로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작가와 관련 전문가를 만나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영화를 보는 다양한 방식 안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아우르는 하나의 개념은 전시의 제목인 '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에 담겨 있다. 미술관은 고립된 '섬'과 '행성'을 생태적 상상력으로 연결하고, 인류세와 기후정의에 대한 요청에 영화와 미디어로 응답한다. 그러니까 을숙도라는 섬은 지구라는 행성을 코로나로 단절과 거리두기를 겪은 이 세상을 새로 잇는 지대가 바로 미술관이 되는 것이다.

이 전시를 기획한 프로그램 디렉터인 김소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영화감독이자 평론가이며, 영화제 프로그래머, 집행위원장, 전시예술가 등 전방위로 활동해온 이론가이자 예술가답게 이 새로운 개념을 물리적 지대로 구현해냈다. 이 시네미디어 지대로서의 미술관은 4월부터 8월까지 기획전이 지속되는 동안 에코 시네마, 공상과학으로서의 'Science Fiction'과 사변적 우화(Speculative Fabulation)를 아우르는 SF영화, 에코 힐링 게임, 설치, 포럼, 토크,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을숙도-세계-행성을 잇고 생태적 위기에 처한 세상을 위한 영화적 기원을 나눌 것이다.

부산현대미술관을 품은 을숙도는 '생성의 장소'이자 '재세계화(Re-Worlding)의 장소'로서 싹 뜨고 꽃 피는 봄부터 울울창창할 여름까지 인류의 희망을 영사하는 꿈의 지대가 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미술관에서 작품 전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김소영 교수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감수성과 감도가 달라졌다고 느낀다. 미술관에서 영화를 보는 새로운 체험 방식을 선사하고 싶었다. 이곳이 바로 포스트콘택트존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 생태학, 인류학, 정치경제학 등의 주제를 아우르는 설치작품, 영화, VR작품 등을 선보이며, 영화감독 78인의 작품 100여 편을 상영하는데 규모로나 범위로나 작품구성으로나 생태적 재생에 대한 새로우면서도 간절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낙동강 어귀에서 물줄기가 너르게 퍼져 습지로 스미고 바다로 이어지듯 이번 전시의 흐름이 영화의 기후로부터 시작해 문명의 기후에 대한 공감과 염려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일컬어 '인류세(人類世)'라고 한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지질 연대로 우리가 사는 행성의 역사 안에 포함되기에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끼친 영향이 너무 크니, 그런 시기를 구분하자며 내놓은 개념이다.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에 의한 지구 환경의 변화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후위기는 지금도 시시각각 세상을 위협하고 있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연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독성으로 땅과 바다에 쌓이고 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류가 번성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생물 종이 멸종되고 있다. 지구촌이라는 말로 세계화 시대를 맞은 이후 이런 인류의 재앙은 어디서 시작하든 전세계적인 재앙이 되기에 '행성의 시대'라고도 한다.

생태적 존재로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짚어보고 기후정의와 공존에 대한 다층적 시각을 나눌 시네미디어 전시장은 시간대별로 다양한 작품을 상영하는 '극장 을숙'을 포함해 자유로이 오가며 원하는 작품을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는 '시네미디어 라운지' '극장 행성' '시네미디어 존' 등 4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극장 을숙에서는 매일 2, 3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주말에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뭇생명에 대한 예술적 애도, 희망과 재생을 기원하는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우주로 뻗어가는 행성차원의 간절함에 공명하는 사오닷 이스마일로바 감독의 〈두 개의 지평선〉과 김소영 감독의 〈SFdrome : 주세죽〉을 함께 본다는 것, 황윤 감독의 〈수라〉를 보며 새만금 간척지에서 10년 넘게 바닷물이 다시 들기를 기다리며 생존을 이어가는 흰발 농게를 찾고, 남반구와 북반구를 오가는 도요새의 눈물겹게 아름다운 날개짓을 볼 수 있다는 것, 미술관에서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찾기 위해 스크린 앞에 앉는 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적 도량석, 미술적 사물법고 의식이 아닐까?

〈영화평론가〉





불이 어디서 왔는가?
〈火〉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⑯ 실체

〈원문〉 "아난아, 불의 성품이 실체가 없어서 여러 인연에 의탁하나니 네가 성안에 밥을 먹지 않은 집을 보아라. 밥을 지으려 할 때 손에 유리 렌즈(陽燧=火鏡)를 잡고 해에서 불을 구하나니 이것을 화합이라 한다면 아난아, 나와 너, 그리고 1250명의 비구들이 지금 한 대중을 이루었으니 대중은 비록 하나나 그 근본을 따지면 제각기 몸이 있느니라. 사리불은 바라문족이요, 우루빈나는 가섭파종이요, 아난은 구담종성이니라.

만약에 불의 성질이 화합하여 생긴 것이라면 사람이 손에 화경을 들고 해에서 불을 구할 적에 이 불이 화경에서 나오느냐, 쑥(艾)에서 나오느냐, 해에서 나오느냐? 만약 해에서 나온다면 능히 네 손의 쑥을 태우니 햇빛이 닿는 숲의 나무들도 태워져야 할 것이며, 화경에서 나온다면 스스로 능히 화경에서 나와 쑥을 태우거늘 화경은 어째서 녹지 않느냐? 쑥에서 나온다면 어째서 해와 화경을 통해 나오는가? 화경은 손에 들렸고 해는 하늘에 있고 쑥은 땅에서 났으니 불이 어디에서 왔는가? 해와 화경은 멀리 떨어져 화합이 아니며, 그렇다고 타는 불이 저절로 있는 것도 아니니라. 세상 사람이 한곳에서 화경을 잡으면 한 곳에서 불이 생기고 여러 곳에서 하면 여러 곳에서 불이 생기나니 어찌 정해진 장소가 있겠느냐?"

〈강해〉 성냥이나 화약 등이 발명되기 전에 불을 구하는 원시적인 방법이 있었다. 유리로 된 돋보기 렌즈를 손에 들고 햇빛을 받아 초점을 맞추어 마른 쑥을 갖다 대면 불꽃이 일어나 쑥이 타는 것이다. 또 부싯돌을 이용하여 옛날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는 일도 있었다.

밥을 짓기 위하여 아궁이 불을 땔 때 양수(陽燧=火鏡)를 들고 불을 구하는 예를 들어 불의 출처를 따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다. 햇빛, 화경, 쑥, 세 가지를 이용하여 불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이 어디서 왔는지 단적인 출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곧잘 인연 소치라고 설명하지만 그 인연도 공한 것이라는 것이다. 〈중론(中論)〉에 나오는 사구송(四句頌)에 "인연에 의해 생기는 법을 나는 공한 것이며 또한 거짓 이름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중도의 뜻이라 말한다(因緣所生法 我說卽是空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고 하였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일어났지만, 어느 것도 실체가 없어 모두가 공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공관(空觀)인데, 이는 연기된 현상을 분석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이를 달리 석공(析空)이라 말하기도 한다. 실제 수행에서 공관을 터득하는 것이 수행의 중요한 고비라고 말한다. 역설적인 말로 공을 모르면 불교를 모른다는 말도 있다. 삼법인(三法印)에서 말한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무아(無我)라는 개념이 연기의 실체가 없음을 뜻하다가 나중에 공(空)이라는 말로 대체되어 설해지게 되었다. 대승불교의 비조(鼻祖)로 알려진 용수(龍樹)는 공에서 팔불(八不)을 세워 중도(中道)를 천명하기도 했다. 사자사구(四字四句)로 불생불멸(不生不滅), 부단불상(不斷不常), 불일불이(不一不異), 불거불래(不去不來)로 표현된 말이 모두 상대적인 양변(兩邊)을 동시에 부정하여 중관(中觀)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바로 중도제일의제(中道第一義諦)라는 것이다. 용수의 중관사상이 담긴 중론(中論)과 십이문론(十二門論), 그리고 제자 제바(提婆)의 백론(百論)을 삼론(三論)이라 하여 이삼론을 중국으로 들어간 고구려의 승랑(僧朗)과 중국의 길장(吉藏) 등이 깊이 연구하여 삼론종(三論宗)이란 종파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밥을 짓기 위하여 불을 지피지만 이 불이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불의 성품(火性)이 시방에 충만해 있다. 세상 사람이 한 곳에서 손에 화경을 잡고 불을 구하면 한 곳에서 불이 나오고 여러 곳에서 하면 여러 곳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다. 불의 성품만 그럴 뿐 아니라 물의 성품도 마찬가지다. 법성(法性)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중생의 업을 따라 발현하는 것이다. 〈능엄경〉에서 말하는 여래장묘진여성은 심심미묘하고 불가사의한 것이다. 경문에서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性)이라고 하면서 희론(戱論)이나 외변사(外邊事)에 떨어지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반신 소주천'하면서 갈비·꼬리뼈 순화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⑯ 반신 소주천(半身小周天)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깨어난 선천원기를 척추뼈를 따라서 오르내린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척추뼈 순화이다. 다음 단계로 갈비뼈 순화를 행한다.

갈비뼈 순화는 '옴' 자 발성법과 진동관법이 함께 쓰인다. 숨을 들이쉴 때는 진동관법을 활용하고 내쉴 때는 '옴' 자 발성법을 활용한다. 들숨에 노궁의 기운을 명문까지 끌어들인다. 날숨에 중심을 울려서 "옴~~~"하고 발성한다. '옴' 자 발성을 하면서 발성의 진동이 몸 밖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면서 중심과 영대, 하단전과 명문이 함께 울리는 것을 주시한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피부를 통해 접해지는 기운의 감각을 척추의 중심으로 빨아들인다. 그러면서 그 기운을 명문까지 끌어내린다. 이때 노궁에서 들어오는 기운과 이 기운이 하나로 합쳐진다. 숨을 내쉬면서 "옴~~~"하고 발성한다. 그러면서 명문과 하단전, 중심과 영대의 울림을 함께 주시한다. 중심과 영대, 명문과 하단전을 연결해서 선천원기를 운용하는 것을 '반신 소주천(半身小周天)' 이라고 한다. 반신 소주천을 하면서 갈비뼈 순화와 꼬리뼈 순화가 함께 이루어진다. 반신 소주천법(半身小周天法) 옴자 발성의 진동을 이용해서 반신 소주천의 통로를 연결한다. 먼저 중심과 하단전을 연결하고 하단전과 명문, 중심과 영대, 명문과 영대를 순서대로 연결한다. 네 개의 경로를 연결하면 '반신 소주천의 경로'가 확보된 것이다. 반신 소주천의 경로를 확보하는 첫 번째 과정이다. 몸 전체의 감각을 열어놓는다. 들숨에 기운을 척추로 흡수한 다음 명문에 저장한다. 날숨에 '옴' 자 발성으로 중심을 울려준다. 발성의 진동이 명문을 울리는 것을 인식하면서 중심과 명문을 함께 주시한 다. 중심과 명문 간에 공명이 일어나면 중심과 명문 사이에 대각선 통로가 형성된다. 그러면서 명문의 진동이 꼬리뼈까지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증을 경험한다. 명문의 기운이 농구공만큼 커질 정도가 되면, 명문에서 꼬리뼈까지 전체 부위에서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 이것은 미추 부위에 쌓여있던 탁기가 빠져가면서 생기는 증상이다.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골반뼈가 출산할 때처럼 벌어졌다 수축되는 증상도 생긴다. 그렇게 되면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증상이 2주 정도 지속된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한 마음으로 이 과정을 넘어가야 한다. 반신 소주천의 경로를 확보하는 두 번째 과정이다. 가슴바탕의 고요함을 하단전으로 확장시켜서 중심, 하단전 경로를 여는 방법이다. 들숨에 노궁의 기운과 촉감으로 인식되는 기운을 명문으로 집약시킨다. 날숨에 '옴' 자 발성으로 하단전을 울려준다. 중심의 진동이 하단전까지 퍼져나가게 하면서 하단전을 주시한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수련한다. 가슴바탕의 고요함이 하단전까지 확장되면 고요함이 더 깊어진다. 그러면서 가슴과 하단전 사이에 텅 빈 항아리가 생겨난다. 반신 소주천의 경로를 확보하는 세 번째 과정이다. 하단전과 명문의 통로를 연결하는 방법이다. 들숨에 명문으로 기운을 집약시킨다. 날숨에 '옴' 자 발성으로 하단전을 울려준다. 이때 하단전의 진동을 명문까지 퍼져나가게 하면서 하단전과 명문을 함께 주시한다. 이 과정을 반복한다. 하단전과 명문이 공명하면서 기운의 통로가 형성된다. 그러면서 들숨 때 명문의 기운이 하단전 쪽으로 빨려 들어오고, 날숨 때 밀려나가는 현상이 되풀이 된다. 통로가 대롱처럼 인식되는 사람도 있고, 작은 공 같은 것이 왕복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기운 덩어리가 펌프질하듯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반신 소주천의 경로를 확보하는 네 번째 과정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⑯ 선지식 만나야 과보 벗어

오온이 투덜댈 때 놓치지 말라

모양을 가진 태어남은 모양에 따라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만, 모양을 벗어난 봄은 어떠한 상태의 세상이 없다. 그리고 사실과 사실 아님이 너무나 명확하여 속는 일도 없다. 그러나 모양을 가진 태어남은 명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무엇에 속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 사실이라 하게 되고, 사실을 보고도 사실이 아닌 줄 알게 된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우리는 아주 쉽게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냥 사실을 사실로 알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면 되는 문제 같지만, 언어가 주는 이해와 실재를 이해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다. 그렇기에 오온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상반된 입장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반대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반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개념을 통째로 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을 안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를 생각할 것이다. 이 문장은 앎을 가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 문장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지나쳐 버린다. 스스로는 그때가 가장 안타까운 심정이다.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인데, 그 말의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다시 무엇을 하는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스스로는 오온이 투덜대는 소리를 정확하게 한 번 듣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 없이 그를 괴롭히는 것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아마 대부분은 여기에서 상처 입고 오온에게 굴복되어 세상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오온이 제시하는 개념을 믿고, 수행이라는 형식에 얽매여 진리를 찾아다닐 것이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신에게 의지하고, 아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놓은 것이라 자부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다고 그 노력의 결과가 존재하는 것인가를 묻는다면, 스스로는 그것은 허상이라 말할 것이다. 그리고 허상은 느껴지고, 지각되고, 인식되고, 의식되는 것이고, 진리는 느껴지지 않고, 지각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의식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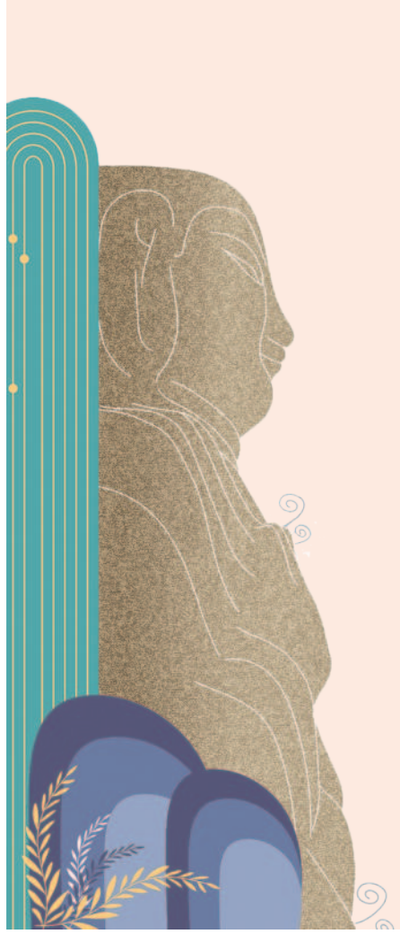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들 다섯 무간의 죄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로지 진정한 선지식을 만날 기회가 있어야 하네. 그래야만 비로소 끊임없이 망상이 이어지는 무간지옥의 괴로운 과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네."

스스로는 누구에게도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없다. 항상 모호한 것으로 그들의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스스로의 임무이다. 그러니 듣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기를 계속 기대하면서 듣게 되겠지만, 아마 이 말이 끝날 때까지 그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만약 세상에서 명확함을 들으려는 마음이 미혹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이제 무수한 세상에서 장애 없는 '있음' 을 알게 될 것이다. 아마 이 말 자체도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배우는 것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는 신념을 가져버린 탓에, 정작 배우는 자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핵심을 놓쳐버린다.

우리의 인식은 의식에 저장되어있는 정보일 뿐이다. 그 정보는 사람마다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지면서 세상을 저장한다. 그러니 의식에 저장되어있는 정보가 세상을 바르게 본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정보는 무작위로 저장되고, 의도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라고 하는 오온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끄집어내어진다. 저장된 정보는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때 이익 혹은 손해라는 허상이 '나' 가 되는 것이지, 실체를 가진 '나' 라는 것은 없다. 만약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일어난 이익과 손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67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는 계묘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33호 | 17 | 전면광고

베를 짜는 북처럼 곧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2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 가능 • 매가 : 15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약 130평 / 836번지 약 300평
- 4년 전 포크레인 작업, 조용하고 청정지역, 아담하고 포근한 자리, 샘물 나옴, 절터, 산소자리 적합
- 가액 : 3,150만원, 건강상 양도

010-7628-9997

사 찰 안 내

사찰로 사용 적합

- 경북 영천IC 1분 거리 대도로 분 부지 1,000평
- 건물 140평 정남향
- 불교요양원, 포교당, 사찰운영
- 가액 30억

010-3540-0196

사 찰 안 내

강서구 방화동 상가 3층 32평

- 법당 넓은평 : 방2, 주방1, 화장실 복도 2칸 단독 사용, 창고방1
- 2000/65만원
- 엘리베이터, 주차 無(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음)
- 주변에 대형마트, 음식점, 재래시장 있음 부처님 외 인등, 북 등 전체 보시
- 시설비만 1,500만원(비품 모두 새것) 몸만 오시면 됩니다.바로 기도 수행 할 수 있음

010-6613-2265

포교원 안내

- 지역 : 구포시장 농협~신협(중간)
- 상가 : 1층 주차장 & 2층 건물 50평(전체)
- 법당 : 아미타, 대세지, 관음, 지장, 신중, 영단
- 시설 : 종무실, 객실, 공양간, 황토찜질방
- 주차 : 50평, 시장 유료 주차, (직)관리
- 전세 : 2천/90(1, 2층 포함), 사권 : 4천 8백만원 (현법회중)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350-2115
010-4535-2568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1천 6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44~43번지
- 대 지 : 5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5억(조정 가능)

010-6449-9552
010-3640-312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 버스 역세권 도보 3분 거리 도시가스, 유동인구 많음

010-3402-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대웅전(53평)
- 부속 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957-8089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2억(살분만 전화)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사 찰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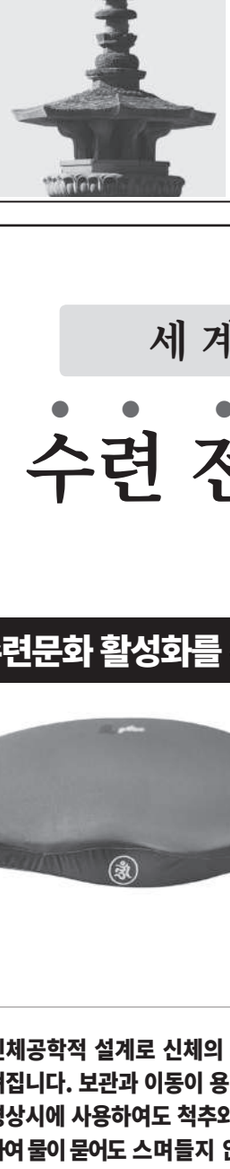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23길 55 지장사
- 단독 주택, 법당 1, 큰방, 작은방, 화장실 2개
- 전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권리금 1000만원, 40평 안쪽에 마당 있음

010-4844-7098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 대지 : 약 250평 법당, 요사채, 주차장 70평
- 공찰소임 관계로 급매 / 시설 완비
- 가액 : 2억 5천만원

054-536-2587

사 찰 안 내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길 30, 3층 도불사(한국불교태고종)

- 법당 : 63평
- 보증금 5천만원, 권리금 3천만원, 월세 210만원, 관리비 30만원
-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스님께서 갑작스럽게 열반하심)

010-3784-018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 8백평
- 건물: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10억

010-4547-0023

사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 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9천만원

010-6898-911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387, 화룡사
- 가액 : 3천 2백만원

기타 문의는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010-6688-9946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절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5분 거리 42번 국도 옆
- 임야 5,000평, 안에 절터 자리 다수 있음, 대지 300평, 암자 6평, 약초농원
- 산 정상까지 길, 관수, 전기 시설 완료, 산삼급 약초 있음, 산 정상에 평탄작업 가능
- 가 액 : 급양도(상담 후 결정)

말기 암 환자 95% 완치도 있음(산기운이 좋음)

010-7922-2077

사 찰 안 내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신.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 건 물 : 법당 25평(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향토방 1동
- 해우소 1동(실사용), 주차장, 전 · 천오백평 감나무, 자두, 두릅, 나물, 고사리 등 다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포근한 살기 좋은 도량
- 가 액 : 5억, 차량 진입 가능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부근
- 대지 약 365평, 가용 평수 약 600평(하천부지 포함)
- 법당, 약사여래, 삼선각, 요사채, 스님이 사용하는 방 3칸 입석부, 종무실 1개, 창고 2개, 신도님 식당 약 25평, 23년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주차장 완비
- 시내버스 거리,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 가액 : 4억 1천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절 창건한지 90년

010-4583-4895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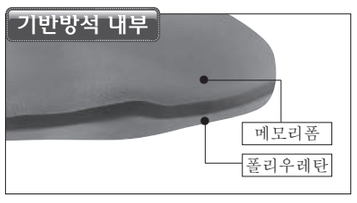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33호 | 18 | 전면광고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숫타니파타》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극락왕생 · 인도환생 발원
반려동물 천도재 · 49재
태아령(낙태, 유산) 영유아 천도사찰

해인승가대,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 큰스님 직접 집전

부산 온천장 약불사 051-556-2270
반려동물 수의판매 · 부산 반야원 010-8543-4289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각단의식,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및 개인지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 륜 사
전화 010-7579-82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사찰 포교원 암자, 모든 불자님께 무료 교육 전수(무속신앙인) (신경정신과전문 의료인 대환영)

모든 신경성 화병, 의처증과 부부문제교육 조울증과 우울증에 의한 실명, 실어증 내향적 이상성격, 특수성격, 악몽 빙의

철학과 한의학의 심리분석, 세계에서 유일한 예방과 치유심리학, 암시 최면술 명상과 기치유 기혈음양의 기순환, 신진대사치유법

문자 남길 010-4078-7810 혜천

무료상담

(법률 세무 및 신행상담, 명상법회)
선행, 송기명 법사(010-3686-4807)
정호스님(법무사)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명상법회(보리방편론)
명상지도사 : 김석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선정원 02-733-5525

단청, 탱화, 개금, 고건축

문화재청
화공기능보유자

010-9387-151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2811-0118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66-2309 / 010-4804-2309
대구종무소 : 010-4009-2388(강법사)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북 문경 쌍용사
- 월 보시 : 200만원 (제비 별도)
- 개인 방사 (원룸식)

010-8819-8988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⑦ 팬지꽃차

기관지 작용 돕고 항산화 작용 뛰어나

팬지는 제비꽃과 제비꽃속에 속한 한해살이 또는 두해살이풀로 꽃은 4~5월에 꽃이 피며, 꽃말은 '쾌활한 마음' 과 '나를 생각해주세요' 이며, 다른 이름은 호접 제비꽃이고, 생약명은 삼색근(三色堇)이다.

팬지는 자주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화단이나 화분에 많이 키우고 있다. 원산지는 유럽이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삼색제비꽃과 근연종(近緣種)을 교잡시켜 만든 1년 내지 2년생 식물이다. 팬지는 샐러드, 음료, 차 등 식용으로 사용하고, 이용부위는 꽃이다.

성분과 약성

팬지의 잎과 줄기에는 플라보노이드(flavonoid), 카로티노이드(carotinoid), 살리실산유도체(salicylic acid), 테르페노이드(terpenoid) 등이 있고, 꽃에는 루틴(rutin), 정유, 비타민 A와 C, 카로틴 성분인 리코펜(lycopene), 베타카로틴(β carotene) 등이 있다.

팬지는 성질이 차고, 맛이 달다. 팬지는 기관지에 작용하여 가래를 없애주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 또 감기나 기관지염, 백일해, 천식 등 호흡기 질화에 효과가 있다. 또 항균, 궤양, 종양, 피부염증 등을 다스린다.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으로 항산화작용이 뛰어나 노화방지에 좋다. 몸의 열을 내리고, 해독시킨다.

마음 · 기(氣)작용

사상의학에서 생기(生氣)의 형성과 작용은 〈동의수세보원〉 '장부론' 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의 몸에는 온기(水穀溫氣), 열기(水穀熱氣), 량기(凉氣), 한기(寒氣)의 네 가지 기운이 돌아가고 있다.

음식(飮食, 水穀)을 먹게 되면, 먼저 위장에서 머물러 소화시키기 위해 열기(熱氣)가 생성된다.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이치이다. 위장에서 생긴 열기에서 가볍고 맑은 것이 위완(胃脘, 목 부위)으로 올라가 온기(溫氣)가 되며, 위장에서 음식이 소화되어 소장(小腸)으로 내려가면 서늘한 기운인 량기(凉氣)가 되고, 다시 대장으로 내려가면 차가운 기운인 한기(寒氣)가 생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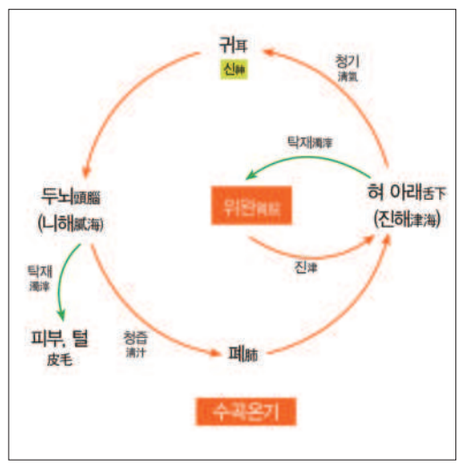
상초(上焦)인 폐당(肺黨)에서는 수곡온기, 중상초(中上焦)인 비당(脾黨)에서는 수곡열기, 중하초(中下焦)인 간당(肝黨)에서는 수곡량기, 하초(下焦)인 신당(腎黨)에서는 수곡한기가 돌아가는 것이다.

태음인은 간의 기운이 크고 폐의 기운이 작기 때문에 간당(肝黨)의 수곡량기는 크지만, 폐당(肺黨)의 수곡온기가 작은 사람이다. 팬지는 폐(肺)에 좋은 태음인의 꽃차로, 수곡온기를 보익(補益)하고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팬지는 가래를 없애주고, 백일해, 기침을 멈추게 하고,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는데, 이는 수곡온기의 위완(胃脘)과 관계된다. 수곡온기는 위완(胃脘)에서 진(津)이 생성되어 혀 아래의 진해(津海)로 들어가고, 진해의 맑은 기운은 귀로 나아가서 신(神)이 되고, 신(神)이 두뇌로 들어가 니해(膩海)가 되는 기운 흐름을 가지고 있다.



팬지꽃차.



즉, 혀 아래에 있는 진해(津海)의 탁재(濁滓)가 위완을 보익하기 때문에 팬지는 진해를 잘 생성시켜 위완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또 팬지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노화방지에 좋고, 항균, 궤양, 종양, 피부염증 등을 다스리는데, 이는 수곡온기의 니해(膩海)와 관계된다. 니해의 탁재(濁滓)가 피부를 보익(補益)하기 때문에 팬지는 니해를 충만하게 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제다 및 음용

팬지꽃은 개화시기인 4~5월에 채취한다. 꽃잎이 겹치지 않도록 올려서 덖는다. 저온에서 꽃잎이 90% 이상 익으면 뒤집어준다. 중온에서 덖음과 식힘을 반복한다. 팬지꽃차 2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팬지꽃차에 민들레꽃차를 블렌딩하면, 항산화작용이 탁월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므로 혈액을 맑게 하고, 항종양과 인후염 등 염증에 효과가 매우 좋다. 팬지꽃차 1.5g, 민들레꽃차 0.5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사상인별 음용 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차를 우림하기 전에는 향은 말린 건고추향이 나고, 우림한 차에서는 풀 비린내가 났다. 들풀을 벨 때 나는 풀내음이다. 또 달콤한 향과 구수한 맛이 났다. 차가 식었을 때 은근한 단 맛이 올라오고, 혀에 살짝 통증이 느껴졌다.

다른 시음자는 우림하기 전에 향은 풀 말린 냄새가 나고, 우림한 차는 아주 약한 비린 맛이 나면서 당기지는 않았다. 차가 식을 때 단 맛이 있어서 마시기에 좋았다.

소양인이 마셨을 때, 우림한 꽃차의 색은 먹물 묻힌 붓을 흰 접시에 살짝 씻은 후 남은 물색 같았다. 1차 시음에서는 연한 소여물 맛이 나고, 볏짚단 냄새가 난다. 마시고 난후 어깨가 아프고, 허리와 등 부분이 이어진 부분이 아파왔다. 위가 뭉치는 느낌이었다. 2차 시음에서는 구수하면서 약간 쓴 맛이 났고, 구수한 냄새가 난다. 트림이 계속 나고, 매스껍고 토할 것 같았다. 입안이 부풀어 오르고, 심장과 가슴부위를 누르듯이 아파왔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차향에서는 거의 무향에 가까운데 마른 지푸라기 향이 났다. 1차 시음에서는 지푸라기 맛이 나면서 타격감은 그리 크지 않았다. 여러 번 마셔보니, 익숙한 맛이었다. 살짝 단맛도 있다. 아린 맛은 여타한 꽃차보다 다소 덜하고, 콧구멍이 시원해졌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연예인불자 신행일기 ④ 가수 웅산

재즈뮤지션으로 걸어온 수행의 길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의 영원한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로 하루를 연다. 대대로 불자였던 집안에서 스님을 꿈꾸셨던 아버지와 유독 자녀 사랑이 깊은 어머니 슬하에 태어나 불교는 모태신앙으로서 자연스레 삶의 일부이자 전부가 되었다. 한창 밖에서 뛰어놀기 좋아하는 어린 나이에도 저녁이면 가부좌를 틀고 앉아 관음정진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던 초등학교 시절 장래희망은 스님과 음악가였다. 이후 학교에 진학하며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합창단, 중창단, 브라스밴드 등 교내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음악 활동을 하며 음악에 빠져 스님의 꿈은 잠시 잊힌 듯 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불현듯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길로 짐을 싸서 절로 들어갔다. 절에 너무 가고 싶어서 무작정 찾아간 충북 단양의 구인사. 그곳에서 스님이 되기 위해 학교도 그만둔 채 수행생활을 하며 지냈다. 스님이 되겠다는 의지는 굳건했고 한 점의 의심도 없었다. 그렇게 2년여 시간이 지났을 즈음, 선방에서 관음정진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스님의 죽비를 맞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깼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노래가 튀어나왔다. 황당해하며 쳐다보는 도반들 사이에서 다시 합장을 하고 관음정진을 하려는데 음악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산사로 떠나온 것처럼 큰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홀연히 산을 내려왔다.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즉, '어느 곳에도 마음을 머물지 않게 하여 마음을 일으키라' 는 〈금강반야경〉의 구절처럼 어디에 가서 무슨 일든 하든 불자인 것은 변함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산을 내려와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했다. 당시 가수가 되기 위한 유일한 등용문이었던 '대학가요제' 의 꿈을 꾸며 상지대학교 밴드 동아리 '돌핀스' 에서 여성 록커로 활동하며 종횡무진 무대를 누볐다. 파워풀한 가창력과 헤드뱅잉을 선보이며 관객을 사로잡는 무대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주위 학교



축제에 초청받아 공연을 하며 바쁘게 보냈다. 꿈꾸던 대학가요제에서 인기상을 받기도 하며 곧 가수가 될 것이라 믿었지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스카웃 제의를 받지 못했고 슬럼프에 빠지게 됐다.

그때 곁에 있던 친구가 다른 노래도 한 번 들어보라며 건네준 것이 바로 재즈였다. 재즈는 그렇게 운명처럼 찾아왔다. 빌리 홀리데이(Billie Holiday)의 'I' m a fool to want you '라는 노래에 완전히 매료되어 재즈보컬의 꿈을 새롭게 꾸게 되었다. 재즈보컬이 되는 길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수행의 과정이라 여기며 하루도 게을러지지 않으려 정진하며 굳건히 걸어왔다. '웅산(雄山)' 은 구인사에 머무는 동안 어느 스님께서 주신 법명이다. '큰 산' 이라는 뜻으로 산처럼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나라는 의미다. 처음에는 웅산이라는 이름이 재즈 뮤지션에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록커의 음색이 너무 짙다는 비평도 있었다. 그러나 수행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매일 가부좌를 틀고 복식호흡을 하며 호흡법을 가다듬을 수 있었고 꾸준히 관음정진을 염송하며 나만의 독특하면서도 허스키한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국악 발성도 가능할 뿐 아니라 힙합, 클래식 등과 다양하게 콜라보하며 새로운 음색을 만들어낸다.

뮤지션의 길을 걸으며 한시도 녹록지 않았지만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약해지지 않고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모든 순간은 불법(佛法)을 통해서 가능했다. 한 번은 공연을 앞두고 컨디션 난조로 곤란했던 적이 있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아버님께서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할 테니 걱정 말고 공연 잘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 듣고 무대에 올랐는데 걱정은 사라지고 어느새 환희에 찬 느낌이 들더니 천상의 노래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하고 멋진 공연을 할 수가 있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공연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음악을 하며 마주한 수많은 경험과 소중한 인연들은 모두 부처님의 가피로 가능했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응무소주이생기심' , 독실한 불자 집안의 뮤지션으로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 가는 대로 행하며 오늘도, 앞으로도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연예인전법단원으로서 불법을 전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뎌 본다.

전재영(연예인전법단 사무국장)

일일시호일

척추염에 식도·심장까지
구멍나 생명위협

스리랑카 가장 아누라씨, 응급 수술로 위기모면
수술 빚 1600만원에 척추 수술도 남아 막막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박태수의 알아차림의 파워 ④ 내 안의 에너지



▶한줄요약
조용히 스스로를 살피면 행복이 싹튼다.

"명상하라! 인생이 수월해진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일이 후회스럽고 부끄럽다. 15년 전쯤 제주국제명상센터 건축의 일환으로 하수로 공사를 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일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공사비를 지불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 나름으로는 후원금을 받았으니 후원금만큼 절약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공사한 분들은 후원금만큼 더 싼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소위 부실공사를 초래하였음이 드러났다. 겉으로 보이는 이익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손실을 가져왔으니 눈앞의 욕심으로 눈 밖의 피해를 가져온 것이다. 사실 후원금을 받을 그때는 공사를 한 그분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 그분을 후원금 명단에 올려 감사의 흔적도 남겼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나의 그런 행위가 어리석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삶의 행동 패턴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살 때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측량에 따르면 그담이 옆집으로 일부 더 들어가 있어서 들어간 만큼 땅값을 더 내놓아야만 했다. 내가 이 집을 살 때 이전 주인이 해결하지 않고 가버려서 내가 대신 해결하려니 괜히 손해 보는 것 같고 귀찮아서 그냥 미루다 보니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이제 개인 사정에 의해 집을 팔려고 하니 그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집값도 그 당시보다 올라서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도 막기가 어려웠다. 당시는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피했으나 지금은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명상을 하면서 점차 알게 된 일이지만 어떤 일이든 해야 할 일은 제때 하도록 정해진 것이므로 약간의 불편함을 겪더라도 제때 처리하는 것이 삶을 단순하게 한다는 진리가 스며있었다.

위 두 가지 사례는 돈과 관련된 일이지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문제도 처음부터 진실과 존중이 함께 해야 한다. 내가 일하는 곳에 함께 있는 A씨와의 관계도 그렇다. 처음부터 A씨의 행위가 왠지 미덥지 못하여 편안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A씨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나 제안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정도 지나자 A씨와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던 감정 관계가 다른 일과 엮여서 터지고 말았다. A씨는 내가 하는 일 중 잘못된 일을 찾아내어 고발을 한 것이다. 그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았다. 그를 존중하지 않은 일이 결과적으로 그를 화나게 하였고 나는 그 일로 힘들게 된 것이다. 대인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른다. 특히 일과 감정과는 분리하여 다루어야 한다. 동료의 행동에 대한 못마땅한 감정이 그의 아이디어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로 나타났고 그로 하여금 악감정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 큰일이 터져버리게 된 것이다.



알아차림과 호흡 집중
신체 에너지 흐름 관조
'나'에 대한 존재 살펴
자신에 대한 사랑 배가

삶에서 건강은 몸, 마음, 영혼이라는 내면세계가 균형을 이루고, 환경과 활발히 소통할 때 나타난다. 데보라 킹(2022)은 "우리의 내면에 흐르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 원만하게 흘러가야 건강하다"라고 했다. 건강하면 주변 사람 및 주변 상황과 조화롭게 에너지를 교류할 수 있다. 에너지가 정체되고 막히면, 감정균형이 깨지거나 몸이 아프다, 감정을 가로막거나 참거나 억누르지 않고 잘 흐르도록 허용해야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에 매달려 있으면, 흐름이 멈추고 막힌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자. '나는 내 느낌에 충실한가?'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 '자기수용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얼마나 잘 살피고 알아차리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진다고 본 것이다. 위의 예에서 나는 A씨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태도로 임함으로써 나와 A씨와의 균형을 놓쳐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대인관계에서 설사 상대가 못마땅하더라도 감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감정이 배제되면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지금 있는 장소나 하는 일, 삶이 편안하지 않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여기는가?' '소속감을 느끼는가?' '살면서 하는 일에 신성한 의지가 반영되고 흐르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누군가가 감정적, 심리적으로 나를 곤란하게 한다고 하자. 동료가 내 뜻을 거스르게 하거나, 친구들 앞에서 부모님이 망신을 주거나 여자 친구가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난처한 상황에서 감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에너지는 흐르지 못하고 막힌다. 이럴 때 잠시 시간을 내어 감정을 다스리고 통로를 열어주는 명상기법을 포함하여 다음의 방법을 사용해 보자.

감정 다스리기는 '알아차림과 호흡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선 등을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는다. 가볍게 눈을 감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인다. 들숨에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바라보고, 날숨에 콧구멍에서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바라본다. 의식을 코끝에 두고, 마치 코끝에 앉아서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듯 현상을 알아차린다. 호흡이 폐로 확장될 때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단지 코끝에 주의를 두고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고 알아차린다. 이 호흡은 감정을 다스리는데 3분이면 충분하다. 다만 공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에너지를 조절할 때 현재에 살면 더욱 좋다.

현재는 생각을 이 순간에 머물게 함으로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없게 한다. 마음은 속성상 한 번에 한 곳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현재에 온전히 가 있는 동안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 매 순간을 지금 시점으로 살면 더욱 차분하고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 보자. 스마트 폰 없이 길을 걸어보자. 자연의 소리, 냄새 및 풍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잠깐 스트레칭도 하고 몸을 느껴본다. 뻣뻣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에 호흡을 싣는다. '나는 현재에 살고 있는가?' 현재에 살면 훨씬 기분이 좋아진다.

'나'라고 하는 자아(ego)가 일어나는 것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에고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더 돋보이게 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가짜 나이다. 이러한 가짜 나는 끊임없이 수치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수치심은 나를 무력하게 하고 에너지를 막아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한다. 진실하고 진정한 자기를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진실에서 멀어지게 한다. 수치심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여 지는지를 인식하면서 비롯된다. 어쩌면 놀림을 당했거나 게으르고, 어리석고, 촌스럽다고 평가되었을 수도 있다. 수치심은 항상 부족한 면을 지적한다. 마음의 목소리가 '나는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또는 '나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아' 라고 속삭인다면 수치심이 작용한 결과이다. 자신의 힘과 진정한 자기(self)를 억압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어린 시절 놀림을 당하거나,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거나, 강압적인 부모와 살았다면 자존심이 낮은 성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내면의 자기(self)와 연결되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려면 삶의 양쪽 측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몸과 마음, 빛과 그림자, 어린이와 성인,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선과 악 등 양면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 자기애는 다른 사람의 요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요구에도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닫힌 마음을 원하지 않는다. 마음이 닫히면 고통은 느끼지 않지만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 말하자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슬픔이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을 열고 고통을 느끼기 힘들다. 마음을 닫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은 막겠지만 사랑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도 막는다. 관계가 끊어진다.

지난번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의 조건으로 명상센터를 사랑하고, 상담과 명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며, 명상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을 모시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춘 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믿음이 가장 큰 분을 추대하기로 하고 이분에 대한 설명으로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사장 조건에 대한 지지 반응이 너무 달라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일은 현 이사장인 내가 해야만 했다. 마침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 지원하였다. 나는 이분에게 오랫동안 수행을 익혔고 존경해왔다. 총회에서 그분을 설명했고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나는 여기서 나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순간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었고, 에너지는 자유롭게 흘러 닫힌 가슴이 열렸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지극한 정성이 회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정말 몇 달을 두고 속을 끓이던 이사장 선출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다.

명상의 목표는 마음을 닫거나 귀찮은 생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다. 바깥으로 산만하게 내달리던 주의를 그 주체인 자신에게 돌리면 자신과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없애고 휴식을 취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며, 나를 건강한 상태로 끌어올린다.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 근원과 만나게 하고 모든 측면에서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게 돕는다. 명상을 계속하면 인생의 모든 면이 수월해진다. 나는 외부 세력에 더 반응하기보다 내면의 에너지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사려 깊고, 현존하며, 행복하고 건강해졌다. 명상은 내 안에 흐르는 에너지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를 가꾸어 어려운 현실을 치유해 주었다.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고통에서 행복으로..멘토들이 전하는 행복강연
본방송 (화) 13:00 재방송 (화) 20:30, (토) 23:15



남을위해 기도하라 자비도량참법
자비도량참법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한 해설을 통해 참회 발원하는 기도정진시간
본방송 (수) 14:00 재방송 (수) 22:30, (토) 07:30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부처님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현스님의 명쾌한 강의
본방송 (금) 08:30 재방송 (금) 19:30, (토) 15: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tv 295번 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33 호 현대불교
2023년 4월 26일(음 3월 7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죽고 살고 인과 유전 모든 것이 다 내 한 점의 마음에 있다

여러분이 초하루 보름 삼 일을 기도드리는 거와 정진하는 거 또 삼배를 올리는 거,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가 생긴 건가. 우리 부처님은 어디고 닿지 않는 데가 없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또 자유자재권을 가지시고 만법의 그 굴림을 여여하게 굴리신다는 말을 항상 합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는 부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왜 부처라고 하느냐 하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대로 일체 만물 대천세계 우주의 근본이 같이 돌아가는 때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그런데 생각을 일으켰다 하면 갖은 각색의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면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찰나찰나 생각을 내는 데는 반드시 몸도 항상 찰나찰나 움죽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배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알게 되면 삼배가 일배고 일배가 삼배야. 삼배가 구배고, 구배가 바로 삼배고, 삼배가 일배라. 그러면 삼천배가 일배도 될 수 있는 거죠. 이 도리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정되지 않다는 실감과 실천을, 실험에 의해서 생활 속에서 아시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부처님은 어느 거든지 하실 수 있다.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모두가 자비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체 우주의 섭류가…, '생물'이라 하면 벌써 전체, 천체가 들어갑니다. 어느 거 생명 아닌 것이 없는 거를 말해서 생물이라고 그럽니다. '생물' 하면 그 생물 속에 동물도 식물도 무정물도 모두 한꺼번에 차원이 따로 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불성' 하면 전체가 들어가듯이. 그런데 그 생물 가운데 작든지 크든지 그 마음과 또는 생각 내는 거와 움죽거림은 다 같습니다. 풀잎 하나도 움죽거리지 않는 게 없고 생명 없는 게 없고, 그 마음 내는 것은 항상 누구나가 다 일체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때는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겨 놔라. 그런다면 거기에서 다양하게 굴려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할 때 약을 따진다 하더라도 천 가지 만 가지가 되니 그 천 가지 만 가지 구차하게 이름을 부르고 천 가지 만 가지 찾아서, 내가 아프면 아픈 방향에 따라서 또는 아픈 데에 따라서 꼭 약을 써야 할 텐데 어떤 약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또 그게 한두 건이라야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서 공편하게 또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 입장으로 따진다면 참 귀찮은 일입니다, 그게.



그림 · 최주현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체험한 얘기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이런 걸 느꼈죠. '야 참, 모든 게 살아나가는 게 귀찮구나.' 사람 사는 것도 천차만별로 움죽거려야 하고 천차만별의 이름이 있어야 하고, 천차만별의 이름을 알아야 그 종류를 찾을 테고 그 종류는 또 천차만별로 돼 있고 이러니 종류마다, 사람 종류도 차원도 또는 어떠한 약의 종류도 이름도 천차만별입니다. 또는 우리 살아나가는 데 천차만별로 이렇게 움죽거리는 이 방향 속에서, 또는 우리만 살아나간다 하면 모르겠지마는 돌 하나, 흙 하나도 전부 움죽거리지 않음이 없음으로써 바로 그것이 약의 종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다못해 물도 약이 되는데 물만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풀잎을 수없이 베어다가 큰 가마솥에다 넣고 푹푹 삶아 보십시오. 나중엔 끓다 끓다 끓다 조청같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모두 어지럽게 생각을 하고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사니까 어지러운 거지. 그래서 수만 개, 수만 짐을 베어서 고니까 똑 조청같이 되는데 그것을 쪼그만큼씩 하게 하려니까 거기에다가 풀뿌리나 이런 거 말린 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섞는다 해도 그렇고, 오징어 뼈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 섞어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약입니다.

왜 그런가. 지, 수, 화, 풍이 전체 약의 근원도 되고, 살아나가는 데 근원도 되고, 법의 근원도 되고 일체 만법의 그 전율 모두, 자동전자, 무전통신, 잠재의식 이런 것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전부 모태가 돼서.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약에만 종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우주간 법칙에도 종류가 돼 있고 또 우리 살아나가는 데에 가난과 부자 이런 것도 거기에 소관이 돼 있습니다. 모두의 근본입니다. 근본 모태가 돼서, 우리가 허망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는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허망하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물질 하나하나가 영원한 거지 영원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변해서, 요렇게 바뀌서 옮겨 갈 뿐이지 영원한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뭐냐.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제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요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풀이 만 개라면, 그 풀의 종류가 전부 선약이라고 한다면, 즉 말하자면 만 개가 전부 이 인체에 똑같이 쓰이는 풀이 아닙니다. 다 각각 돼 있습니다. 요거는 뭣에 먹고 요건 뭣에 먹고 요건 뭣에 먹고 하는 그것이 천차만별로 뭐,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따져요?

나는 그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물질로 본다면 이름도 천차만별이고 생김생김도 천차만별이고, 하고 돌아가는 것도 천차만별이니 이거 귀찮아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너 말이야. 너 물질이 있다면 나도 물질이 있고, 네 마음이 있다면 나도 마음이 있고, 네 마음 가운데에 선약이 있다면 나도 내 마음 가운데에 선약이 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부족할 땐 네가 받쳐 주고, 네가 부족할 땐 내가 주마.' 이렇게 한다면, 이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겨 놓는다면 주인공은 하나지 둘이 아니야, 모두가.

그런다면 물질로서 일일이 이름을 따지고 일일이 종류를 찾지 않아도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서, 만약에 어디가 아프다, 또 가난하다, 무슨 법에 걸렸다 이런 종류에 따라서 전체를, 하나하나 닥치는 대로 거기에다 맡겨 놓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모든 분야와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약은 거기에 다 돼 있어. 그런데 일일이 그놈의 거를 종류를 따지자니 얼마나 살기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귀찮습니까.

내 오면가면 봐도 그렇고 참,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귀찮았던가. 내 참 잘 생각했지. 아니, 여러분도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이 숭상하지 않는다면 대우주의 근본의 원리 또는 활용 이 자체를, 또는 내가 한 발 한 발 옮겨 간다는 그 진화력 이런 거를 도저히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터득을 한다면 모두 우리가 편리하게 앉아서 천리만리 있는 약도, 즉 말하자면 불로초를 구할 수도 있는 법이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지만 참인간은 불로초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일일이 요거는 약풀이고 요거는 약풀이 아니고 이렇게 종류 종류를 따진다면 수효가 천차만별로 돼 있고 도대체 어떠한 이름과 어떠한 종류를 찾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고 귀찮게 되고 인생살이가 고가 되지 않을 수 없고 도대체 그렇게 귀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 원 근본에다가 모두 놓으니까 근본끼리 전부 주고받습니다, 근본끼리. 그 뜻을 아신다면 아니, 저승에 가서 불로초는 구하지 못하리까.

그래서 안락사라는 것도 저승에 가서 모든 문서를 파악할 수 있고 자유자재권을 가져서 그거를 들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들춰 볼 게 있어서 들춰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근본에 넣으면 전부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수명은 어떻게 돼 있고 또는 죄상이 얼마나 돼 있고 인과가 얼

☞ 22면으로 계속



태양보다 더 밝은 불이 바로 나한테 있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마나 돼 있고 유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을 전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 놓으면 모든 것은 바로 그 근본 한 점에서, 한 점과 한 점이 수천, 수만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한 점은 한 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도, 선약도 우리는 그대로 섭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여야만 약인 줄 아는데 진짜 약은 무전자에서 나오는 그 액 자체의 선약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불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할 수 없는, 저런 은하계나 저런 다른 혹성, 별성에서도 구할 수 없는 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바로 한 점의 마음에서나 구하지 절대로 딴 데서는 구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편리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일이, 어떤 때 테레비에서 보면 무슨 꽃가루만 와도 알레르기, 뭐만 와도 알레르기, 고등어만 먹어도 알레르기, 뭐, 천체가 모두 그냥 이름도 많고 종류도 많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쫓아가며, 그렇게 끄달리면서 이 한 몸뚱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한 몸뚱이 살기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차라리 나지나 말 것을….' 하고 아마 대동소이하게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것은 하고 볼 일입니다. 꼭 해야만 합니다. 그 수많은 약이 다양하게 내 한 점의 마음에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도 부자도 바로 한 점에 있다는 겁니다. 죽고 살고 응보라든가 인과라든가 유전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 점에 있다는 겁니다. 일체 생명이 다 그것이 한데 합쳐서 내 한 점에 다 포괄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이 아닌 게 없고, 내가 급하면 이 여기에다가만 바로 맡겨 놓고 만약에 한생각을 일으킨다면…. 아, 생각 안 일으킬 수가 없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다가 다리가 어그러졌다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아요? '어이, 다리가 어그러졌네!' 그런 생각이 뭐, 손살피 아주 그냥 금방 신호가 오죠? 신호가 올 때 그냥 '흥, 나를 끌고 다니는 장본인이 다리가 어그러졌으면 날 어떻게 끌고 다니노?' 하고 웃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 당당하고 도도한 여유, 그것이 바로 시시때때로 나를 보조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나의 부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속의 중생들은, 이 몸속의 중생들은 어떻게 끌고 가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과로 인해서 또는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다 억겁을 통해서 지내 왔기 때문에 진화돼 가면서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지금 이 속에 잔뜩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뚱이 속의 그 부하들의 중생은 자기 한생각에 진화가 되느냐. 이 몸속에서, 그 갑갑한 몸속에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도 자기한테 달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게, 물질 아닌 선약이 수천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게 있으며, 이 법이 자연의 법칙과 자동적인 활용과 자동적인 무전통신과 바로 자동 전자, 이 도리가 전체의 이 여기에 모두가 포괄돼서 구성되고 있으니까 모든 게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됐다면 90%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인간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한 이름에 끄달리고 남의 말에 끄달리고 바로 어떠한 종류에 끄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 살맛이 어디 나겠습니까? 나는 사람이 오고 가며 '이렇게 되면 이런 병이고, 이렇게 되면 이런 병이고' 이런 소리만 들어도 아휴, 전체가 아니라 저 병 분야에 대해서, 알레르기 종류 하나만 가지고도 저렇게 천차만별로 이름이 많고 저렇게 종류가 많고, 그러면 계란에도 뭐가 있고 고등어에도 뭐가 있고, 풀꽃에도 있고 풀잎에도 있고 이슬에도 있고 모두 그렇다면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영 모르니 할 수 없이 나는 이렇게도 한번 해 본 예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이름이 뭐더라? 꽃이 일어났다고 그러던가요? 그것만 일어났다 하면 뭐, 예까지 차면 죽는다고 합디다. 뭐 저, 풍란이라고도 그러던가? 그게 무슨, 무슨 꽃, 빨갛게 전부 그냥 두드러기처럼 일어나면서 진물이 나면서 전체 몸뚱이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전체 몸뚱이가 또 하얗게 백목이 먹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집니다. 나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근데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지금 의사들이 말하는 그 하나 가지고도 그냥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이 많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도 오고 어디에서도 온다 이럽니다. 근데 귀찮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 종차 거기에 끄달려서, 한 번 죽기는 마찬가진데 그냥 거기에 끄달려서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이게 여기에서 일어난 거다 저기에서 일어난 거다 이럭하고선 찾다 보면 사람은 지칠 대로 지치고, 살기가 고달프고 참 막연하고 어처구니없을 때가 있죠.

예전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서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마는 저 미국으로 간 어떤 중령이 있습니다. 그 아들도 그 병을 얻었죠. 그래서 이 잔등이로 어디로 배고 뭐, 그냥 하나 성한 데 없이 그것이 나면서 숨이 차올라 오면서 정신을 잃게끔 자꾸자꾸 희미해 갔습니다. 그때 그 집은 병원으로 찾아다닐 돈도 없었습니다. 딴 데 가서 병원 의사, 박사한테 물어보면 이것이 여기서 생기고 저기서 생겼다니까 병원에 와서 약 치료를 하는데, 이게 한 자리라야 어떻게 해 볼 텐데 온통 여러 자리고, 그것을 따고는 물을 빼고서 약을 발라 주는데 얼마 안 있으면 딱정이가 앉으면서 그 속에 또 물이 앉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어떡합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뻘겋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뻘겋게 그냥. 그래 가지고 예까지 차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 이름이 있습디다. 지금 새 이름을 붙여서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귀찮아서 나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벗겨서 보이는데 엄청나요. 이거는 뭐, 거기에 안으로 들이긋기만 하면 뭐, 옴폐부득 없이 그냥 죽겠어요. "엄마의 마음에 달렸어. 어디든지 이 약이 있어. 이 산천초목에 그 약이 없을라고.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죽이고 살리는 건 여기에 매였다고 맡겨 놔 버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가서 촛불 켜 놓고선 그냥 앉아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잠을 자려니까 하얗게 소복한 의사 셋이 들어오는데 한 분은 스님이고 한 분은 또 간호원이고 한 분은 기계 가방을 들었더랍니다. 들어와서 이 가방 속을 탁 여는데 보니까 전부 풀뿌리에 싹이 난 그거더랍니다. 그런데 한 가방인데 풀어 놓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전부 일어나더랍니다, 이렇게. 전부 살았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는 거라고 이럭하니까, 스님이 있다 하는 말이 "너희들은 다 들어가고 이 한 이파리만 나와도 되느니라." 하고 말을 하니까, 그 이파리가 나와서 거기 아픈 데 가서 전부 붙더랍니다. 그러더니만 그 이파리가 붙어서 진을 묻히고 진을 묻히고 이럭하곤 돌아가더니만 가방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방 속이라고 그런다고 가방인 줄 알지 마세요. 전체 우주 삼라만상 한데 합쳐진 가방이라고 보세요. 그렇게 하고 가더니 그 이튿날 아침부터 그게 꾸득꾸득하더니 그냥 씻은 듯 부신 듯 나았더란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이름을 알려고 그러고 또는 종류를 쫓아다니고 끄달리고 이러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녹음 안됨)

… 점점 닥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달프게 중생으로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보고 하나하나 듣고 남한테 끄달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내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는다면, 이게 가방 하나라면, 내 마음 한 점이 우주 전체의 대천세계의 가방 하나라면 끄달릴 거 하나도 없죠. 죽는다 하더라도 끄달릴 거 없고 산다 하더라도 끄달릴 게 없고 거기에 뭐가 끄달릴 게 있습니까. 종류에 끄달려? 이름에 끄달려? 만약에 한생각이면 배가 부르고 한생각이면 그 어디 아픈 게 낫고, 한생각이면 저기 가고 한생각이면 여기 오고 이럴 정도라면 우리는 살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달프게 살지 않고 말입니다.

>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보고 듣고 남한테 끄달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 내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는다면
> 거기에 뭐가 끄달릴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도리를 모르면 영원히 또 이렇게 끄달릴 거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끄달리는 이 자체가 한 점의 마음에 달렸으니 그 한 점의 마음에 천 가지 만 가지 나오는 거, 천 가지 만 가지 보는 거, 천 가지 만 가지 듣는 거, 천 가지 만 가지 활용하는 거 모두 일체 자기의 성품에 의해서, 그 한 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다 모든 걸 맡겨 놓는다면 자기가 그렇게 맡겨 놓는 반면에 거기에서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약이 돼서, 부당한 게 오는 게 아니라 다 바로 거기에 맞는 약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보이는 약만 생각하고 보이는 이름만 찾고 보이는 데서 방황합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물도 선약이 돼 줄 수가 있고 아주 또 그냥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어떠한 독약이라도 바로 내 생각에 달려 있으니 그 생각에 의해서 그건 독이 빠질 수도 있고 독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또 종류가 암모니아도 되고 가스도 되고, 석유 기름도 모두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흙도 항생제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그 폐병의 근원도 없앨 수 있는 그런 항생제 역할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돌에도 생명이 있고 약이 되고 모두가 약이 아니 되는 게 없는데 왜 그 종류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야만 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포천에 계시지마는 아, 그 집의 영감님은 벽에 저, 뭡니까? 진흙 그거를 만날 그냥 맛있게 먹었거든. 맛있게 먹은 게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폐가 너무 망가졌으니까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숯도. 숯은 왜? 숯은 나무가 탄 거기 때문에 끓는 물에다가 넣어서 다시 그 물을 식혀서 먹으면 열이 내린다 합니다. 그건 들은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그런 걸 생각해 본 예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생물, 말하자면 메뚜기나 메뚜기같이 생긴 오줌싸개나 이런 것도 다 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류를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름 찾고 뭐 찾고 종류 찾고 이럴 게 없이 한 점의 마음에는 우주 섭류의 그 근원이, 약뿐만 아니라 천체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에 이익이 있고 생활의 지침이 되고 생활의 연구가 되고 생활의 개발이 되고, 우리는 이 마음의 차원을 좀 더 높여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고 고에서 휘달리며 애를 쓰지 말고…. 내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고도. "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할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체험하고 진짜 여기의 근본이, 우주의 모든 근본이 여기의 한 점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다 내가 아쉬운 대로 꺼내 쓰니까 뭐가 급한 게 있고, 뭐가 겁나는 게 있고, 뭐가 걱정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 아님이 없으면서, 항상 겸손하면서도 그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물과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난 모든 게 귀찮습니다. 왜 귀찮은가? 그 일일이 종류 종류…, 참 귀찮아. 인간 사는 게,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도 고초스럽고 아주 골치가 아플 지경이죠. 골치 아프게 살지 마세요. 전부 여기에 선약이 다 있고 가난과 우환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기에 다 있고, 편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도도하게 굴러 흘러 돌아가는 이 자체도 여기에 있고 우리가 몸뚱이로 났어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불이 바로 나한테 있다는 그 점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간단하게 해 둡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4월 24일 일반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이젠 중생제도 합시다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출가 당시 절집 문화는 오직 '깨달음'
최근엔 '포교' 부상…사회 부응 증거
상월결사 인도순례 조계사 회향식서
회주 자승 스님 "중생제도" 말씀 공감

우린 어떤 마음가짐으로 포교해야 하나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가 좋은 롤모델
부처님 '遊行' 강조…'길 위의 삶' 의미
이 같은 자세로 포교해야 장밋빛 미래

필자가 출가할 때만해도 어른스님들에게 '승려는 선방에서 엉덩이 붙이고, 정진해야 한다' 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당시 절집 문화는 오롯이 '깨달음' 이었다. 근자는 '포교' 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듣는다. 불교가 그만큼 사회와 대중문화에 부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신자를 자랑했던 불교가 기독교에 자리를 내어준 지 오래되었다. 게다가 근자는 신도들의 고령화, 출가자 부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식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께서 "성불은 다음 생으로 미루고, 이번 생은 중생 제도하십시다"라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다.

법을 전하다! 진리를 전하다!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포교해야 하는가? 이점에 모델을 제시해준 분이 있다.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인 부루나 존자이다. 부루나 존자는 카필라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바라문가 아들이다. 부루나의 부친은 카필라성 정반왕의 국사였고, 그는 베다에 정통했으며, 당시 학문에 박식한 인물이었다. 이런 명문가 출신 자제여서일까? 부루나는 조금 거만함이 있었다. 부처님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면이 보였다. 부처님의 진심어린 충고에 부루나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부처님 설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설명해줘 금방 이해시켜줬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변재 능력에 '설법제일' 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그는 인도의 서부지역 수나아로 가서 전법할 것을 맹세하고, 부처님께 그 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다. 부처님께서 염려하는 눈빛으로 부루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알기로는, 그 지역 사람들은 사납고 흉악해서 욕하고 꾸짖는 일을 예사로 한다더구나. 만약 그 나라 사람들이 너를 욕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비록 그 나라 사람들이 설령 저에게 욕할지라도 그들에게 착한 심성이 있어 손으로 때리거나 돌로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칼로 너를 해치면 어쩌려고 하느냐?"

"부처님, 그 나라 사람들이 제 생명을 해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열심히 수행해 해탈코자 하는데, 육신이 병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행자도 있습니다. 그 서부 사람들 덕분에 내 썩어빠진 육신이 죽게 되면 (나를)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루나 존자를 대견하게 여기며 말씀하셨다. "부루나야! 그대는 수행을 잘 해서 참고 견디는 인욕을 체득했구나.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곳의 거친 중생들을 충분히 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열반을 얻지 못한 자는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부루나는 부처님께 하직하고, 서부 수나아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제도했다. 이 내용은 잡아함부 〈부루나경〉에 나타난 이야기다.

중국 고대~근대까지 속강승(俗講僧)이라는 승려들이 있었다. 이들은 일반 평민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경전 내용을 설화처럼 꾸며서 맛깔나게 이야기해주는 스님들이다. 중국도 고대로부터 문맹인이 많아 경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속강승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불법을 전했다. 우리나라도 '땅설법' 이라고 해서 이를 실행하는 스님이 있다고 들었다.

부처님께서 당신도 그러했지만, 제자들에게 '유행(遊行)을 떠나라' 고 하셨다. 유행이란 길에서 중생들에게 음식물을 공양 받고, 법을 설해주며, 나무 밑에서 잠을 청하는 삶이다. 부처님과 옛 선지식들은 '길 위, 맨발의 삶' 이었다. 이런 자세로 포교한다면, 한국불교도 멀지 않아 장밋빛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부대중, 조금만 분발하자!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해상강국 상징 '법화사'

지난해 7월 22일 한 · 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왕루신(王鲁新) 주제주중국총영사는 제주와 중국 간에 천년고찰의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1200여 년 전 '해상왕 장보고의 발자취를 다시 잇는다' 라는 의향서를 체결했다. 해상무역을 통해 한중일과 동아시아를 연결했던 장보고처럼 한 · 중 관계 진전과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물적 · 인적 · 문화 · 역사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 도지사를 비롯해 중국 법화원 스옌쉐 스님, 법화사 도성 스님, 관음사 정안 스님 등이 함께 참석했다.

법화사는 제주 산남을 대표하는 사찰로, 통일신라시대 장보고에 의해서 창건된 절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사찰의 앞 해안에는 당시 동아시아 해양의 중심지였던 대포포구가 있다. 이 대포포구를 통한 삼국 교류의 중심 역할을 법화사가 담당했을 것이라고 본다. 장보고는 해상 근거지로 지금의 완도 일대인 청해진(828~851)을 중심으로 한 · 중 · 일 교류의 주도권을 잡고 활동하였는데, 이 무렵 중국 산둥성 적산촌에 신라방(新羅坊)과 탐라에 법화원을 창건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법화사 관계자 스님들과 학자들은 이 시기에 제주에 불교가 전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탐라 법화사에 관한 가장 오래된 현존 기록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나온 명문기와이다. '至元六年己巳始重創十六年己卯畢' 원나라 세조 지원 6년(1269)에 중창을 시작해 지원 16년(1279)에 마쳤다.

이 발굴 현장에서는 청자와 청동등잔, 백자, 분청사기 등과 함께 개원통보(開元通寶)도 발굴되었다. 이 화폐는 당나라의 대표적인 청동화로, 당나라의 창업을 기념해 무덕(武德) 4년(621) 처음으로 주조 발행되었다. 이 동전은 그 후 역대 왕조의 표준형이 돼 무종 5년(845) 회창에서 주조한 예가 있으며, 오대 삼국시대의 남당(937~975)에서도 발행했다. 고려에서는 목종 때(998~1009) 같은 이름의 주화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탐라의 법화사는 그 창건이 원지배기 이전인 것은 확실하다.

이후 법화사는 탐라국이 고려의 현으로 편입되고 조선의 직접 지배에 들어서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태종실록〉(1406년)에서 명은 사신을 파견해 탐라의 법화사에 욕심을 드러낸다. 명의 성조 영락제는 칙서에서 "짐이 선황과 황비의 은덕을 거듭 생각하여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제전을 봉행하고자 하여 특별히 사례감태감 황엄 등을 보내어 그대 나라 탐라에 가서 동불상 몇 좌를 구하게 하니 잘 도와 성사시켜 짐의 뜻에 부응토록 하라"는 명을 내린다. 이와 함께 '탐라 법화사에 있는 미타삼존은 원의 양공(良工)이 만든 것이다. 우리가 곧바로 가서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다. 그 의도가 명이 탐라를 살피고자 하는 데 있음을 간파한 조선의 조정에서는 전남 해남을 통해 나주까지 동삼존불을 옮겨 인계했다. 그때부터 삼존불이 떠나간 곳이라고 해서 강정포구 서쪽을 '세불포구' 라고 불렀다.

또 〈태종실록〉을 보면, 조선의 조정은 법화사의 노비 280구를 30구만 남기도록 하였다. 억불정책으로 법화사는 중반 이후 비보사찰의 지위마저 빼앗기고 사세가 급격히 기울어 18세기에 이르러 폐사됐다. 역사의 풍랑을 헤쳐 온 법화사가 다시 복원된 지 100년, 동북아의 중심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 출범에 부쳐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주요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명상센터 건립 등을 시행하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4월 19일 공식 출범했다.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에는 불교계 안팎의 내외 귀빈과 사부대중 1500명이 참석해 종단 핵심 불사의 성공을 축원했다.

"비원(悲願)을 안고 넘어진 채 엎드린 부처님을 바로 모심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새로운 미래의 '천년을 세우다' 는 우리 불교의 중흥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문화대국이 되는 국운융창의 새로운 천년을 세우는 엄중한 뜻이 될 것"이라고 불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천년을 세우다' 는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을 총괄하는 슬로건으로 '과거 천년' 을 세워서 '미래 천년' 을 열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과거 천년' 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이고, '미래 천년' 은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 동력을 결집하는 불사를 의미한다.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됨에 따라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주요 종책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4월 28일에는 경주 남산 열암곡 주차장에서는 진우 스님과 경상도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도입재 법회' 가 봉행된다. 이 같은 원력 결집과 실무적 연구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마애불의 입불을 시행한다는 게 조계종의 복안이다. 종단중흥과 국민행복 시대를 상징하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워, 미래 천년을 위한 선명상센터 건립, 미래세대 포교 불사 등이 아름답게 회향되길 바란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에 거는 기대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에 상진 스님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안정화된 태고종을 중흥시킬 새 수장을 뽑는다' 는 기대 속에서 시종일관 열기가 가득한 채 진행됐다.

투표에서 62%의 지지를 얻고 당선된 상진 스님은 "공심으로 일하겠다"며 "위로는 어른과 선배 스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래로는 후배 스님들과 종단 발전을 위한 논의를 거쳐 어떤 일이 있어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종단을 운영해 빛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진 스님은 공식 출마를 준비할 때부터 임기 내 펼칠 주요 종책을 내실 있게 준비했다. 종도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종책 실현의 타당성을 논의했고 보여주기식의 선거용 종책이 아니라 실용적 종책을 강조하며 종단의 변화를 염원했다.

△문화사업단 설치 운영을 통한 태고종 문화유산 확산 △종무행정 관리시스템 대폭 이양으로 지방교구 종무원 활성화 △동방불교대학의 사이버 대학 전환, 신도교리 통일화 △승려전문 노인병원 · 요양원 설립과 태고종 장례의식 시스템화 △종단 운영의 재정 자립화 △지방초심원 부활을 통한 징계절차 3심화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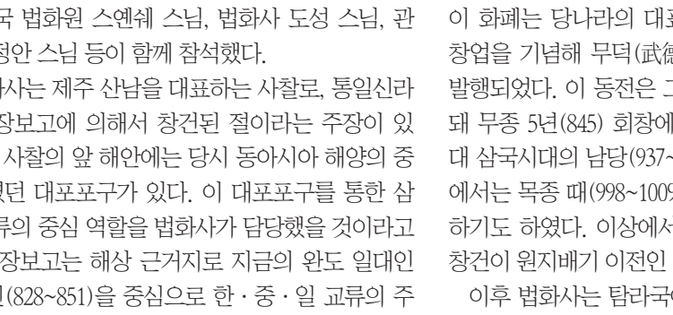
특히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전 순서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조태천' 으로 서열2위였던 태고종은 수년간 이어진 내부 갈등으로 위상을 잃고 현재 '조천진관태로 다섯 번째다.

태고종이 품고 있는 잠재력이 새로운 총무원장과 발현된다면 의전 서열 5위에서 2위를 올라설 수 있는 건 시간문제다.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적임자가 총무원장으로 뽑힌 만큼 곧 시작될 태고종의 비상을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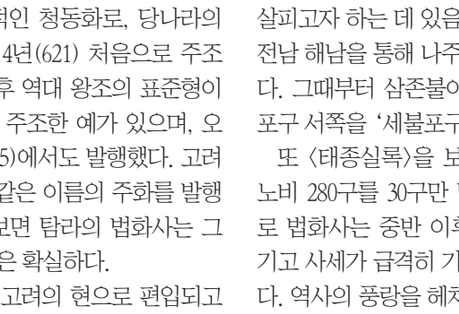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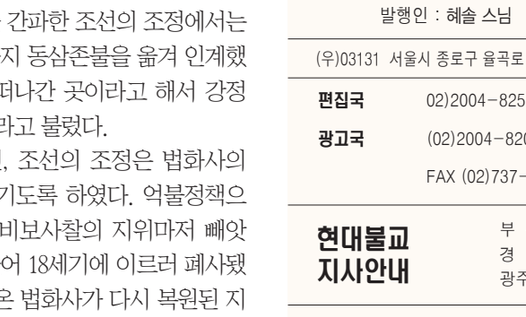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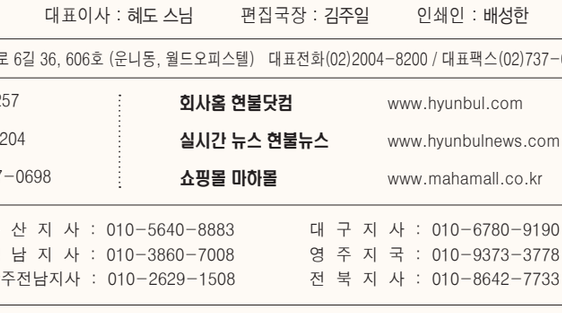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부산을 품은
복합문화공간
P.ARK [피아크]



피아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카페와
다양한 F&B, 문화, 예술, 체험 등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콘텐츠를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오시는 길 부산 영도구 해양로195번길 180
문의 051-404-9200

◀ 좌측의 QR코드를 통해
피아크에 대해 알아보세요.

P_ARK